



2021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 탐방

민주야 여행가자!

탐방 보고 자료집



2021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 탐방

민주야 여행가자!

탐방 보고 자료집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contents

01

만석동꾸러기

(김성수, 우성민, 윤상휘)

민주야! 만석동부터가자!

07

02

감잠소년단

(김정원, 정예리, 최다연)

피, 땀, 눈물

17

03

청년(靑年)

(김지원, 김민지, 오정근)

청년들, 타임머신을 타고
청년이 되기 전으로 돌아가다

33

04

함께걸음 아자아자

(김우진, 김민혁, 김태현)

제주로 가자!!

41

05

디딤돌

(임종윤, 신아영, 배민주)

예비 선생님들의
청년 민주주의 역사 바로알기

47

06

안파크루

(진수진, 송경진, 송권일)

오월을 노래하다

55

07

Dr.ph

(최성관, 권범진, 이석주)

서울에서 인천 그리고 제주까지
민주탐방

71

08

모자이크

(강소원, 김다은, 이은선)

대학생의 이름으로

79

09

전서진과 아이들

(전서진, 김규리, 최유식)

민주화 운동을 위해 여러 직업군에 종사하신
분들의 정신과 화생을 기리고 탐구해보자

99

10

동지(同志)들

(강혜주, 박세은, 전지혜)

열사들 삶의 길을 따라서

111

11

더울림

(김유정, 홍우영, 김예슬)

민주화 운동을 음악에 담기 위한 여행

125

12

청천극장

(서유현, 조보경, 김시영)

청년, 청년 전태일을 만나다

131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인천광역시 '인천민주화운동기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단체로, 인천광역시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단체입니다.

I 주요사업

자료실 운영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수집과 보존,
전시, 편찬 사업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



인천민주화운동 역사를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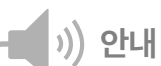


민주화운동 계승과 희생자 추모 사업

민주역량 강화사업



민주시민교육, 청소년, 청년
민주화 역량 강화사업



인천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을 기증받습니다.

문건 사료(간행물, 일기, 메모, 재판자료...), 박물사료(현수막, 포스터, 의상, 걸개그림...)

멀티미디어사료(비디오, 사진, 슬라이드 필름...), 구술사료(인터뷰, 사건 구술 기록...),

도서류(민주화운동 단체에서 생산된 도서 및 정기간행물)

2021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일정표



만석동 꾸러기

김성수 우성민 윤상휘



민주야! 만석동부터가자!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인천 동구 만석동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친구들이 모여 민주화운동에 대해 공부하고 탐방하기 위해 모였다. 만석동에서 자랐지만 주변에 있는 조선기계제작소, 동일방직, 일꾼교회, 북해안선, 대건교 등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거나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중요한 거점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자랐다. 그래서 만석동과 그 일대를 중심으로 인천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담긴 거점을 탐방하고 지금의 마을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외에 타 지역에도 우리 동네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거점들을 방문하여 그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알아보고 지금의 마을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알아보고 싶다.

서울편

9월 25일 저희 '만석동꾸러기' 멤버들은 마지막 탐방지인 서울 종로에 있는 전태일기념관에 방문 하였습니다. 전태일은 한국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인물로 노동운동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저희에게도 친숙한 인물입니다. 전시장 바로 앞과 전태일 기념관 1층에 들어서자마자 전태일 열사의 동상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기념사진은 필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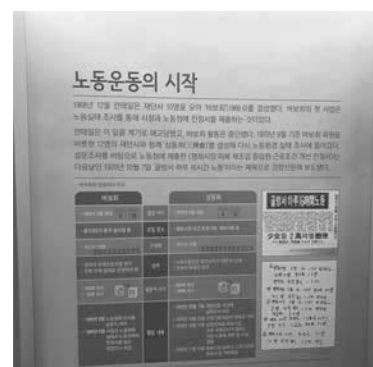


열사의 낮은 자세를 따라하며 한컷!



열사의 생동감있는 자세를 따르며 한컷!

전시장은 4층에 있었고,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전태일 열사의 일대기를 먼저 마주 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운동을 하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노동운동에 대한 생각을 만들었는지, 어떤일들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가까이에서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작업현장에 동일한 작업장에서 한 컷!

실제 전태일 열사가 미성사로 취직할 당시 평화시장 노동자는 하루 기본 15시간 장시간 노동은 물론, 밤샘 야간작업으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하루 15시간 이상을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햇볕도 들지 않는 작업장에서 먼지를 마셔가며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전시관에는 작업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만석동꾸러기'들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겠죠??

실제로 작업현장과 동일한 곳으로 꾸며놓은 곳에서 얼마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장이 낮아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15시간이상을 쉼없이 일을 했다고 하니, 마음이 먹먹해 졌습니다. 전시장 마지막 부분에는 실제 노동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소음'과 '비위생적인 환경'들을 재현해 낼 수 있는 구조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10여분간 구조물을 작동시켜 관람을 하였고, 굉장한 소음과 비위생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오감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전태일기념관을 돌아보며 그 당시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고,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한층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인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 노동자들 스스로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인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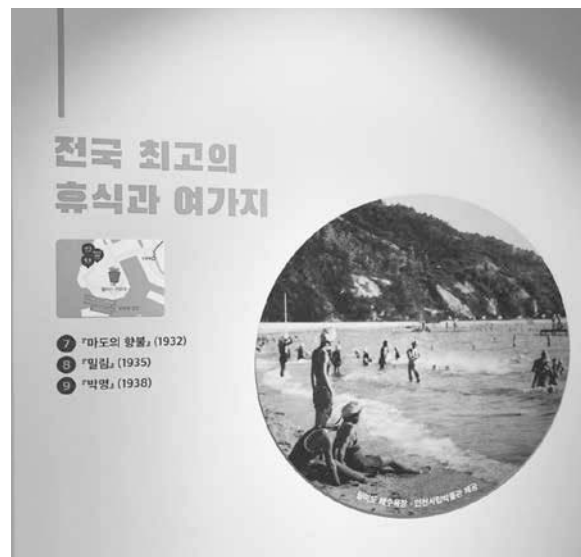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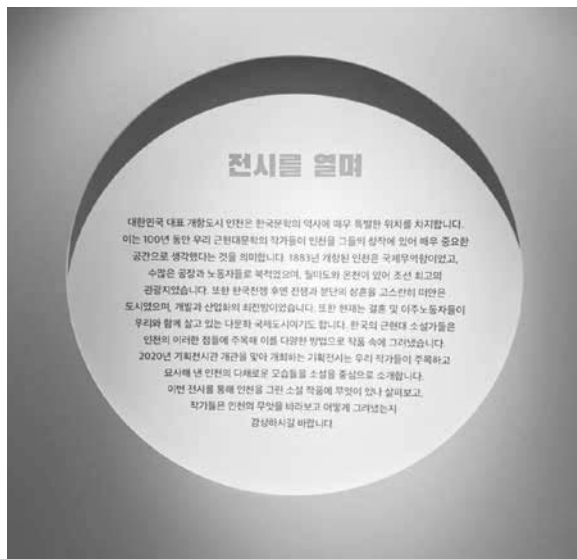
화수 화평 재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인 민주화 운동의 역사이자 노동 문화유산인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존치를 위한 릴레이 일일 단식에 참여 하였습니다. 인천 도시 산업 선교회는(인천 산선)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 문제, 도시 빈민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 기독교 단체입니다. 미국의 조지 오글 목사가 인천에 정착한 이후 40여 년 동안 이 지역 주민들과 고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인천 에코뮤지엄 리서치&투어『주름진 바닷가 겹겹의 이야기』를 읽고민주야 여행가자 만석동 꾸러기 팀원들과 함께 동일방직에서 도시산업선교회까지 이어진 '여성노동자의 길'을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석동 꾸러기 팀원들이 태어나고 자란 만석동 주변에 건축유산들에서 전쟁과 징용,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흔적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2019년에 열렸던 행사 '여성 노동자의 길을 걸으며 유신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싸운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힘겨웠던 투쟁을 다시한번 기억하였습니다.





해방기를 거쳐 맞닥뜨린 한국전쟁은 나라와 민족에
 내려왔습니다. 특히 국토의 황폐화와 함께 피난민
 문제는 본단이 불러온 민족적 비극이라 할 수 있
 전쟁 중에는 인천상륙작전이 수행된 격전지였으며
 미군이 진주한 곳이자 많은 피난민들이 정착해 새로운
 된 곳입니다. 소설가들은 이 문제를 주로 어린 C
 바라봅니다. 오정희의 대표작 「중국인 거리」는
 시선으로 전쟁 후 황폐해진 중국 차이나타운 일대를 보
 다. '바닷가 소년'은 고아가 된 소년의 눈을 통해 피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원규의 「포구의 황혼」은 소래포
 근해 집경지를 배경으로 가족을 복에 두고 단신 월
 부친을 통해 분단의 비극이 세대를 건너 이어지고
 단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문제작입니다.

단식이 끝난 후에 김도진 목사님과 한국근대문학과에서 열리는 '인천문학
 기행 - 인천이야기가 되다' 기획전시를 관람했습니다. 1883년 개항된 인천
 은 국제무역항이었고, 수많은 공장과 노동자들이 북적였으며, 월미도와
 온천이 있어 조선 최고의 관광지였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후엔 전쟁과 분
 단의 상흔을 고스란히 떠안은 도시였고 개발과 산업화의 최전방이었습
 니다. 또한 현재는 결혼 및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다문화
 국제도시이기도 합니다.

- 전시 설명 중

전시를 관람하며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근현대 작가들의 시선으로 인천
 의 이야기를 다양한 작품으로 그려내고 그 이야기를 따라 역사를 들여다보
 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아직 남아 있는 산업문화 유산들을 찾아보
 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며 전쟁과 징용의 아픔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투쟁의
 현장을 들여다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열사들의 희생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 할 수 있
 게 되었으나 이러한 역사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수의 이익집
 단의 결정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역사적
 인 가치와 이야기들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중한 자
 산들이 사라지지 않고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편

70여 년 전 아름다운 섬 제주는 냉전과 분단의 광풍에 수만 명의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4.3사건'입니다.

저희는 '민주야 운동가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민주주의 현장 탐방의 일환으로 4.3사건을 기록해 놓은 '4.3평화공원에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제주도 민간인학살과 처절할 삶을 기록한 영화 '지슬'을 관람하고 공부했습니다.



영화 '지슬' 관람

영화와 책을 보며 4.3사건에 대해 공부한 후 8월 말 제주도에 위치한 '제주 4.3평화공원에 방문했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은 이름이 의미하듯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4.3평화 기념관'에 들어가 보니 4.3사건에 대한 사실적이고 충격적인 기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주 4.3평화기념관 입구



제주 4.3평화기념관 기록 관람



4.3사건의 발생과정에서의 안타까움과 전개과정에서 볼 수 있는 희생자들의 처절함과 군경의 잔인함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제주 4.3평화기념관 전시 및 기록물

또한 전시 및 기록실을 둘러보며 한국 현대사에서의 4.3사건의 의미와 민주주의로의 과정에서의 중요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외로 나와 평화공원을 거닐며 4.3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베를린 장벽의 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제공한 베를린 장벽의 일부

냉전의 상징물이기도 한 베를린 장벽은 일부는 70여 년 전 미국과 소련의 대립, 좌우익의 갈등속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4.3사건의 희생자의 추모와 평화를 위해 건립되는 '제주4.3평화공원' 조성을 기념해 2007년 독일에서 기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4.3사건 희생자 일부 사진

저희 '만석동 꾸러기'는 4.3사건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방문하여 전시 및 기록물을 보며 앞으로 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알고 주변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잡 소년단

김정원 정예리 최다연



피, 땀, 눈물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저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흐름에 대한 감을 잡고 올바른 민주주의 방향성에 관해 탐구할 소녀들! 감잡 소녀단입니다.

‘민주주의는 피의 자양분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인물들의 피와 땀, 눈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우리가 목소리 높여 우리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바탕입니다. 더러운 물이 깨끗해지는 것보다 깨끗한 물이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다시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피, 땀, 눈물을 품은 역사의 흐름을 통해 고찰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광주’ 이야기

광주의 오월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불을 지폈다. 아프지만 강했던 광주의 피, 땀, 눈물의 발자취를 따라 광주를 탐방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유신 체제 세력과 군부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와 함께 시작됐다. 전두환 등 반란 군부 세력이 정권을 찬탈하려고 불의하게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짓밟았다. 이에 민주화와 자유를 위해 시민들이 일으킨 투쟁이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과 학생들은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무력 진압에 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정치와 사회 변혁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민주 정치가 자유와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일깨워주는 계기였다.

첫 번째 장소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활동과 그 이후 펼쳐진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문서, 사진, 영상 등을 모아 놓은 곳이다.

현장 기자의 취재 수첩, 많은 시민들의 일기, 병원 치료 기록 등 다양한 자료가 생생하게 보관되어 있다. 1시간마다 기록관을 함께 돌아다니며 설명해주는 해설사님 덕분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에 의해 고립된 상황에서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등 높은 연대 정신을 발휘하여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시민자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것은 5.18 민주화 운동이 '민주, 인권,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했던 역사적 사건임을 알려준다. 국민들의 저항과 참여, 연대 의식은 인정받아 2011년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에 방문한 감잡소녀단은 전자 방명록을 남기고 그들의 피땀눈물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피를 나눈 공동체

항쟁 기간 내내, 광주 시내 병원에는 많은 부상자들이 있었다.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폭행과 총상을 입은 중상자들이 매우 많았기에 병원마다 수혈에 필요한 피가 부족했다. 이에 시민들과 학생들, 가정주부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병원으로 달려가 헌혈에 동참했다. 의사와 간호사, 병원 직원들은 밤낮으로 쉴 틈이 없었다. 이렇듯 광주 시민들은 피를 흘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피를 나눠 아름다운 시민 공동체를 이뤄냈다.

두 번째 장소 옛전남도청 & 금남로 일대



옛 전남도청은 시민군 본부였으며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도 시민군이 끝까지 저항한 최후의 항쟁지였다. 무겁고 불안한 기운 엄습한 5월 21일, 오후 1시 20분경, 침묵과 긴장감 속에 도청 옥상의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으며 그 순간 공수부대는 시민들과 차량들을 향해 무차별적 사격을 시작했다. 총구의 방향이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했던 그 시절,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는 군대는 외부로 적으로 삼아야 하지만 언제나 시민들을 향했다. 피로 물든 금남로는 공권력이 최대치가 되고 시민들의 인권이 최소로 전락한 시대를 볼 수 있다.

금남로는 항쟁과 민중의 거리이다. 5.18 민주화 운동 기간 중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연일 격렬하게 저항했던 상징적인 거리이다. 5월 18일 최초 학생 연좌 시위가 있었고, 5.18 민주화 운동 이후 진실을 밝히려는 투쟁들이 이 거리에서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민주화를 위한 시민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 거리이다. 이곳의 시계탑에서는 5시 18분이 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흘러나온다. 감잡소녀단은 숭고한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5시 18분에 맞추어 이곳에 가서 묵념을 했다. 간접적으로라도 그 날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피로 물든 금남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한다.

1980년 5월 17일 밤,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전국 주요 대학에 계엄군을 배치하여 계엄해제와 전두환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의 희망을 짓밟았다. 공수부대는 도청으로 향하던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부상을 입혔다. 분노에 찬 시민들은 저항했지만 금남로는 시민들이 흘린 피로 물들어 갔다. 공수부대의 야만적인 과잉진압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과 노동자, 농민, 남녀노소 모두가 울분을 안고 거리로 나섰다. 두 손에 돌멩이를 움켜쥔 시민들은 M16 자동소총 앞에서 힘없이 쓰러져갔고 시민들은 스스로 자신과 이웃을 지켜야만 했다. 이후 시민들은 총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쳤다. 밥과 피를 나누고 불의에 맞섰다.

세 번째 장소 전일빌딩 245

전일빌딩 245는 계엄군의 공중 사격을 보여주는 곳이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의 4차례 현장 조사에서 전일빌딩 외벽에서 68개, 건물 10층에서 177개의 총탄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탄흔은 헬기에 의한 공중 사격을 의미하며 계엄군의 폭력 진압에 대한 증거이다. 총탄 흔적은 발견되었지만, 아직 헬기 사격을 명령한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5.18 민주화 운동은 아직도 진행 중인 역사임을 일깨워 준다.





위 사진은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화하여 보여주는 설치 미술이다. 섬뜩 이는 섬광, 공포 그리고 어두웠던 그 날의 하늘을 보여준다. 시민들이 느꼈을 공포, 그 시대의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관람객을 향해 발사된 탄환의 궤적은 민주주의를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우리를 향해 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일 빌딩 10층에는 헬기 탄흔 원형 보존 공간이 있으며 보존 처리 후 탄흔을 유리 스카й 워크를 설치하여 가까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해놓았다. 눈으로 직접 본 탄흔 자국은 매우 충격적이었으며 진실 규명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힘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대동세상, 광주

시민군은 순찰을 돌며 시민 보호와 질서 유지에 앞장섰다. 시민들은 시민군을 위해 도청으로 식량을 나르고 여성들은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에게 건네주었다. 광주는 고립된 상황에서도 사재기나 약탈, 강도 등도 없었다. 고립됐지만 광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항쟁기간 동안 광주의 어머니들은 골목길에 모여 솔단지를 걸고 불을 지폈다. 제집 식구의 밥처럼 정성스레 지은 밥으로 주먹밥을 만들고 바구니와 양은대야에 담았다가 시민군 차량이 지나가면 건네주었다. 그날 이후 주먹밥은 광주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다.

‘광주’를 탐방하며 느낀 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며 그 속에 민주화를 이루어온 많은 희생이 있었음을 다시금 느꼈다. 전일빌딩의 탄흔 자국과 같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역사에 큰 관심을 갖고 진상 규명이 될 것을 기도할 것이다. 민주화를 이룩하고자 했던 아픔과 강함 속에서 보인 높은 도덕성과 시민 자치 공동체 실현은 매우 감동적이었으며 다툼과 증오가 자리 잡은 현 사회에서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했다. 그 날의 피, 땀, 눈물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상기하며 계속 노력하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해 힘쓸 것이다.



‘군산’ 이야기



광주에서의 민주주의 역사 탐방을 마치고 다음 날 군산으로 향했다. 군산은 우리나라 곡창지대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강제 개항되어 곡식을 수탈당했던 슬픈 역사가 담겨 있는 장소이다. 군산에 도착하니 과거의 슬픔이 담긴 장소들을 쫓 둘러볼 수 있는 1930' 군산 시간 여행 코스가 잘 마련되어 있었다. 감잡소녀단은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 근대 미술관, 근대 건축관, 옛 군산세관의 순서로 돌아보며 민주주의와 독립을 위해 힘썼던 민중들의 피, 땀, 눈물을 찾아보았다.

첫 번째 이야기 피

“일제를 향한 끊임없는 항쟁”

군산의 농민들과 노동자들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고 같은 일본인 소작농과 노동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대우를 받았다.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일본인에게 빼앗겨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지주에게 터무니없는 소작료를 내야 했다. 또 정미공장의 조선인 여성 노동자들은 일본인 자본가나 관리자의 폭력과 수탈에 무방비로 노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삶 속에서 군산 사람들은 농민조합, 노동조합, 야학 등을 통해 힘을 모아 끊임없이 일제의 수탈에 대항하였다. 군산에서의 항쟁으로 임피장터 만세운동, 정미소 미선공들의 파업 소작쟁의, 옥구농민항일항쟁 등 여러 항쟁운동을 살펴보았다. 모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 사건들이었고 비록 항쟁들은 일본에 의해 제압되었지만 그 독립과 민주화를 향한 열의가 지금까지도 남아 현 세대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땀

“곡식 수탈에 저항하는 농민들”

군산은 호남평야의 곡창지대에서 수확하는 쌀을 일본으로 수송하는 항구 도시였다. 감잡소녀단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교통시설 관련 전시를 보며 일본이 쌀 수탈을 목적으로 군산을 개발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선 간만의 차에 따라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군산의 뜬다리 부두는 일본으로 쌀을 강제 송출하기 위해 서해안의 특징을 고려해서 고안한 다리이다. 또한 일본은 군산선을 건설하여 주요 농장이 있는 곳마다 역을 만들고, 군산 내항까지 깊숙히 철도를 놓아 항구와 철도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쌀을 효과적이고 빠르게 옮기고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중 군산선의 간이역으로 임피역이 만들어졌는데 그곳에서는 역사적인 옥구농민항일항쟁이 발생하였다. 군산 근대화거리와 임피역사가 거리가 멀어 아쉽게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근대역사박물관에서의 전시를 통해 옥구농민항일항쟁의 과정을 알 수 있었다. 항쟁은 가혹한 일본인 지주의 수탈에 맞서 저항하며 시작되었다. 지주가 소작농들에게 수확량의 75%를 소작료로 요구하였던 것이다. 항쟁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을 읽어 내려가며 당시 일본인들의 수탈이 얼마나 심했는지, 조선인들이 얼마나 차별받고 고통받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눈물

“평지의 일본인 거주지와 산 위의 조선인 거주지”

군산을 탐방하면서 일본식 가옥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입장 마감으로 아쉽게도 밖에서만 살펴보았던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당시 유명한 포목상이었던 일본인 히로쓰가 살았던 가옥이다. 이처럼 군산에는 농업과 상업으로 부를 쌓은 일본인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대지주로는 군산 최고의 농장주였던 구마모토가 있었는데 당시 구마모토의 소유 논이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규모였다고 한다. 군산이 개항한 이후 군산에서 일본인들의 독점적 권력이 강화되었고 많은 일본인들이 식민권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군산에 정착하여 부를 축적하였던 것이다. 1910년 강점 이후 일본인 가족단위의 영구거주가 많아졌으며 1920년 산미증식계획의 실시에 따라 미국 수탈량이 급증하면서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커다란 부를 축적하였다.

반면 일본인 농장이 확대됨에 따라 조선 농민들의 삶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일본인 지주들이 대량으로 땅을 사들이거나 간척 사업을 통해 농장을 만들자 대부분의 농민들은 그들의 땅을 잃고 소작농이 되었다. 결국 많은 농민들이 허름한 토막집에서 살며 노동을 통해 생계를 잇는 빈민이 되었다. 군산에서의 토막민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였다고 한다.

‘군산’을
탐방하며
느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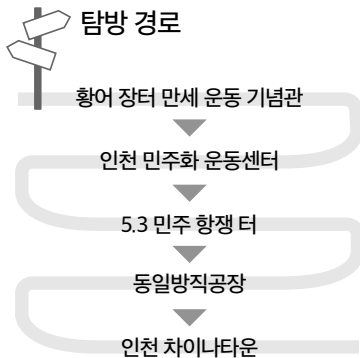
군산은 일제 강점기 쌀 강제수탈과 항쟁운동이라는 과거의 역사를 군산시간여행이라는 관광코스를 통해 오랜 기억으로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잘 짜여진 역사 관광코스뿐만 아니라 군산시에서 만든 “군산스탬프투어 & AR보물찾기”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더욱 몰입해서 재미있게 탐방에 임할 수 있었다. 군산 탐방을 통해 토지를 빼앗기고 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을 수탈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생존권과 나라의 자주권을 외쳤던 당시 민중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선열들을 본받아 현 세대의 우리도 우리나라, 전 세계의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른쪽 사진은 군산 근대 역사관에서 살펴본 1920년대 군산의 전경이다. 강점기 때 군산 도시는 공업적, 상업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어 내었지만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이중



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제 시대 군산의 조계지는 평지에서 원형으로 해서 확장되어 갔다. 본정통을 중심으로 관공서 및 은행, 회사 등이 들어선 상업, 업무지구가 형성되었고, 군산역 부근에서 공업지역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조계지 밖 산기슭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혀 개발되지 않은 곳으로 도로와 건물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군산항에 운반되어온 쌀의 하역작업을 했던 조선인들의 거주지였던 것이다. 일본인 거주 지역은 도로, 상하수도가 잘 정비되어 있었으나 조선인 구역은 도로가 협소하고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오물처리가 되지 않아 악취와 위생문제가 심각하였다. 이처럼 군산은 성장하였지만 조선인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져만 갔고 쌀의 수확량은 증가했으나 조선인들을 위한 쌀은 더욱 감소하여 갔다.

‘인천’ 이야기



2021년 9월 2일, 광주와 군사에서의 탐방을 마치고나서 우리는 인천으로 향했다.

원래 계획상 ‘인천’에서는 현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장소들만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 운동 정신이 현대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해 관련 장소를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천’에서는 어떤 독립 운동이 있었을지도 궁금해서 ‘황어 장터 3.1 만세 운동 기념관’과 차이나타운 주변을 추가적으로 방문했다. 이 탐방을 계기로 12년간 학교 교과서 속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인천의 독립 운동과 민주화 운동들에 대해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었고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다. ‘민주주의’는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상황을 나타낼 때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천’에서 정치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한 장소들을 탐방해 보았다.

첫 번째 장소 인천 차이나타운 청·일 조계지 주변

‘인천 차이나타운’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짜장면이나 중국식의 화려한 건축물들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 차이나타운 주변에는 인천의 개항기 당시의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고 대표적으로는 청·일 조계지가 있다. 조계지는 개항장에서 외국인이 자유롭게 통상하고 거주하며 치외 법권(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고 자기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 동쪽에는 일본사람들이, 서쪽에는 청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서쪽이 바로 지금의 차이나타운이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아픈 면이 남아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는 시간과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가지는 못했지만, 차이나타운 주변에는 ‘인천 개항 박물관’이 있어서 시간이 된다면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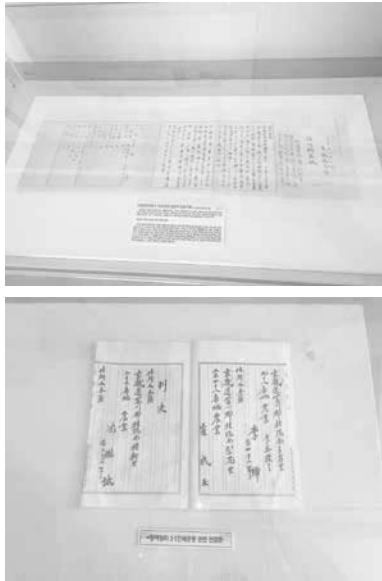


인천 차이나타운 청·일 조계지 구역



개항의 이면

인천의 차이나타운에는 청·일 조계지가 남아있다. 개항기에 열강이 이권을 가지기 위한 기 싸움이 일어났던 공간이었다. 조선에 존재하는 땅이었지만 그 공간에서 청, 일본의 사람이 조선 사람을 해코지해도 조선의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청과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조선에서 많은 이익, 돈을 얻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조선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고 조선은 이를 막지 못했다. 이때부터 인천의 피 땀 눈물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 장소 황어장터 만세 운동 기념관

‘황어장터 3.1 만세 운동 기념관’은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3월 24일 ‘인천’의 ‘황어 장터’에서 일어난 ‘황어 장터 만세 운동’을 기억하고 그 이후로도 일어났던 여러 항거 활동들을 기억하고자 만든 공간이다. 이곳은 ‘황어 장터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계양산의 만세 운동’, ‘면사무소 파괴항쟁’ 등 인천에서 일어났던 여러 독립 운동들과 애국지사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관련 여러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고 우리는 이곳에서 인천의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었다.

지나쳤던 곳들

‘심혁성’ 지사의 주도로 3.1 만세운동 당시 황어 장터에서도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참여한 자들을 일본 경찰들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의 반발과 항거가 있었다. ‘임학, 박촌...’ 학교를 오고 가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지하철역 이름들이다. 이 지명을 가진 지역들에서 이곳 주민들은 독립 운동을 한 자들을 체포하는 일본에 대항해 여러 문서들을 불태우면서 일제에 항거를 했다. 그들은 일제의 엄청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다.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간절함... 이들의 정신은 훗날, 현대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지난 시간 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지하철역을 다시 지날 때 우리는 과거의 시간 속에 존재하던 독립과 자유를 향한 그들의 피 땀 눈물들이 생각날 것 같다.





세 번째 장소 동일 방직 공장

동일방직공장은 일제 강점기부터 있었던 면방직 공장으로, 공장 측의 부조리함에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인 곳이고 '동일방직 노동조합 똥물투척사건'이 일어난 공간이다. 현재 동일 방직 공장 건물은 남아 있으나, 출입은 허가되지 않는다. 우리가 정문을 통해 열핏 보았을 때 과거의 모습들이 공장 건물에 조금씩 남아 있는 것이 보였다. 노동에 있어서 민주적인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희생이 드러난 공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

1970년대 동일방직은 다른 공장들보다 월급도 많고 식사와 기숙사를 제공해 노동자들이 선망하는 기업이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휴일근무와 잔업에 시달렸고 기계처럼 일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았다. 1970년대는 노동인권에서 있어서 과도기적인 시대였다. 1976년, 회사의 횡포에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파업농성을 벌이자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알몸으로 시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농성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1978년, 이 공장에선 야간근무 후 지도부를 뽑는 투표현장에 회사 측의 주도로 노동자들의 몸에 똥물을 뿌리는 사건들도 있었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자신의 권리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고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사건이었다.



네 번째 장소 5.3 민주 항쟁 터

1986년 5월 3일 일어났던 인천 5.3 민주항쟁이 1987년도에 일어난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일어났던 자리이다. 현재는 당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자리를 나타내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5.3 민주 항쟁 터에서 당시에, 이름 없이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을 생각해보았고 한편으로 이런 비석만이 남겨져 있는 것이 뭔가 쓸쓸하기도 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들

우리가 많이들 기억하는 1987년의 '6.10 민주항쟁'... 그 이전에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일어났던 '5.3 민주항쟁'이 있었다. 1986년 5월 3일 인천의 주안역과 시민회관 부근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타도', '민주 정부 수립'이라는 구호가 울렸다. 인천 시민회관 앞에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수 만 명의 노동자들과 학생, 시민들이 군사 독재에 맞서 대대적인 시위들을 벌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1987년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2021년 지금 그곳엔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 라는 비석만이 의연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생겼다.



다섯 번째 장소 인천 민주화 운동 센터

이곳은 인천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을 주관하는 센터이며 인천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공간이다. 현재, 이 센터에선 인천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기억하고자 민주화 운동 기념관 건립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앞으로 이런 민주화의 역사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그리고 인천의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것 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인천 민주화 운동 센터



인천 민주화 운동 센터 자료들

* 계획에 있었던 '경동사거리'는 당시, 시간과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답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1960년 4월 인천 시민들이 이승만 독재 정권과 3.15 부정선거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맺힌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들

지금까지의 탐방들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독립 운동, 노동인권운동, 민주화 운동 등, 인천에서도 민주주의와 민주적인 사회를 향한 사람들의 갈망들과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훗날, 이들의 피 땀 눈물을 계승하고 싶었고 인천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들을 마련하고자 하셨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주화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해 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안고서 앞으로의 길을 나아가야겠다. 이는 이제 현재의 피 땀 눈물이기도 하다.

'인천'을 탐방하며 느낀 점

'인천'에서는 다양한 시대들(일제강점기, 1970년대 노동인권운동 현장, 민주화 운동 현장 등)을 살펴볼 수 있어서 다채로움이 느껴졌다. 생각보다 '인천'이라는 도시에는 교과서 속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많이 조명되지 못했던 민주화 공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번 탐방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이 역사적 사실들에 관심을 갖지 않은 채로 살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금은 무서웠다. 인천의 민주화 장소들 속의 피, 땀, 눈물을 직접 탐방 할 수 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다만, 인천엔 이런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고자 하는 기록관, 박물관과 같은 시설들이 거의 없거나 작은 규모로 있는 것이 조금은 아쉽기도 했다. 인천 민주화 운동 센터에서 직원분들의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내내 생각했듯이 앞으로 인천에도 민주화 장소를 기억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박물관, 기록관과 같은 곳들이 생긴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오히려 덕분에 탐방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직접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본 파트가 인천이어서 인상 깊게 남는 지역이기도 하다.)

청년 (靑年)

김지원 김민지 오정근



청년들, 타임머신을 타고 청년(靑年)이 되기 전으로 돌아가다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인 세상에서 태어난 저희는 민주주의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대학교 동기들끼리 결성한 팀입니다. 민주화의 꽃을 피운 6월 민주항쟁을 시대 순이 아닌 역 시대 순으로 이동하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6월 민주항쟁에 참여한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INDEX			
01 팀 소개 주제 소개 탐방지 소개	02 해외사례 1 홍콩 민주화 혁명	03 해외사례 2 이집트 민주화 혁명	04 현 민주주의 경향 앞으로의 과제
청년 1987년 대학생 그리고 인천, 서울, 천안	조슈아 원 우산혁명 평화적인 촛불시위 오프라인 광장	유튜브 페이스북 SNS 온라인 광장	온오프라인 광장 활발한 민주주의 토론 국민청원 촛불시위



팀 소개

청년(靑年)

청년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젊은이 = 대학교 동기들
2. 푸른 시기 = 1987년 민주주의를 쉼 틔우던 해를 상징

2021 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_청년(靑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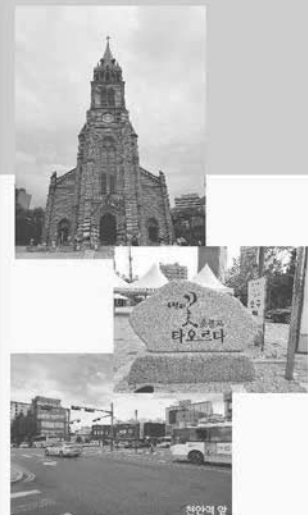
2021.10.12(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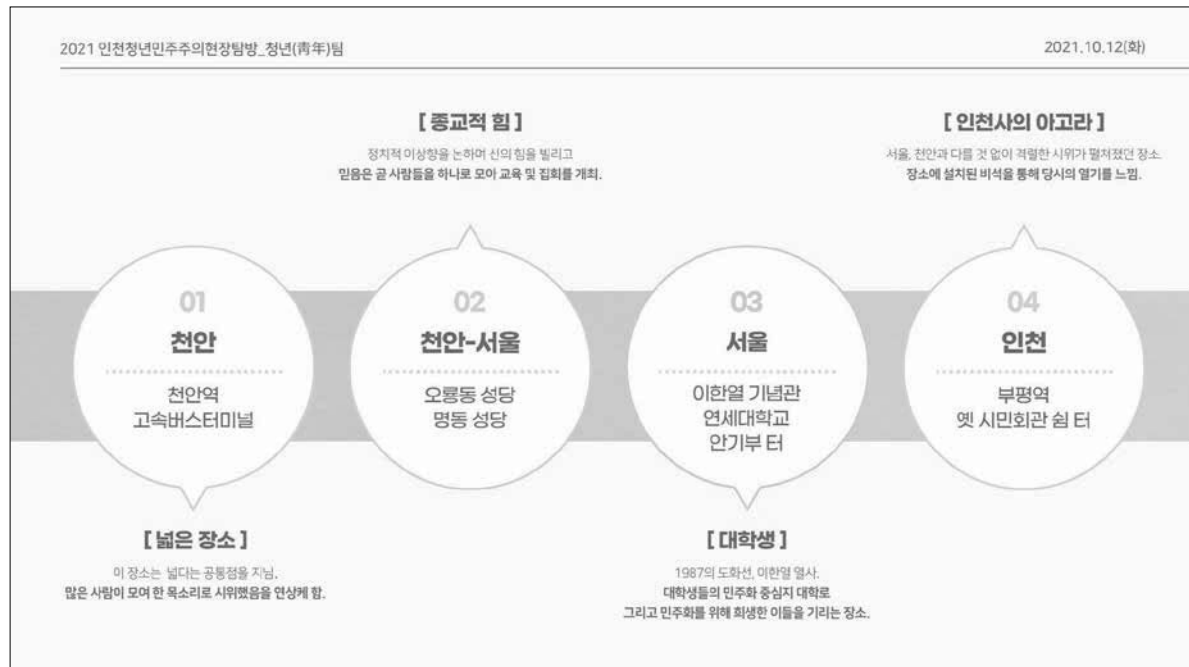
주제 소개 (1987)

시위와 관련된 사건, 광장 같은 집회장소에 초점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민주화운동 중 1987년 6월 민주항쟁 관련 장소 방문 / 이후 그 열기를 떠올려 봄

- 1 천안 - 천안역, 천안 고속버스터미널, 오룡동성당
- 2 서울 - 명동성당, 연세대학교, 이한열 기념관, 인기부 터
- 3 인천 - 부평역 일대, 옛 시민회관 쉼터
- 4 그밖에 해외 사례 - 홍콩, 이집트





2021 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_청년(靑年)팀 2021.10.12(화)

탐방 후기



김지원_팀장
안기부 터에 적힌 세계 인권 선언문처럼 우리는 모두 평등한 시민으로서 결
사를 맺고 집회를 열 권리가 있다. 이처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만들기 위해
1987년의 민주화 운동은 매우 험난한 과정을 겪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까지 노력이 있었을 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김민지_서기
2017년 2020년 그리고 올해까지 여러 번의 민주화 탐방을 갔지만 이번만큼
빈 공간을 일부러 찾아가서 무언가를 발굴해 내려고 한 노력은 이번이 제일
컸던 것 같다. 특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오정근_총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민주주의를 그동안 당연하게만 생각해왔던 것 같다.
이번 탐방으로 민주주의가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것을 알 수 있었던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더 나아가 투표는 물론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민
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었다.

이어서

탐방으로 그치지 않고 청년팀은 해
외 사례를 분석하여 전세계의 민주
주의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더 나아
가 청년의 과제를 논해보고자 한다.



광장 민주화를 열망하는 이들의 중요한 산실

민중의 여론을 형성 변화를 염원하는 이들을 포용

민주화를 열망하고 민주화를 위한 변화를 추구하는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모두의 공간이기도 한 광장은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요즘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정보화시대의 광장은 자연스레 온라인으로 옮겨졌다.

이젠 세계 곳곳의 온라인 광장에서 시민의 개혁의지가 뜨겁게 표출되어져 오고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속에서 그 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열린 공론의 장을 펼치고 있다.

* 정보화 시대의 초연결성

*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물결

]= 정보 교류 필연적

해외 사례 1 홍콩 민주화혁명

오프라인 광장에서 우산을 들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다!

2014년 경찰이 발사하는 최루탄을 피하려고 우산을 들고 투쟁했던 이른바, 홍콩의 우산 혁명에서 당시 18살이었던 조슈아 왕은 현재 25살 청년이다. 그는 "우산 혁명은 시민들이 투쟁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인한 계기이므로 미완이지만 실패한 혁명은 아니었다."고 평가한다.

그는 2019년 다시 홍콩 시민을 이끌며 현재까지도 홍콩의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있다. 홍콩의 에든버러 광장에는 그를 따르는 색색의 우산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그가 한 인터뷰를 보면 홍콩의 우산혁명과 한국의 촛불혁명은 민주화 운동의 좋은 선례이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을 알 수 있다.



2021 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_청년(靑年)팀
2021.10.12(화)

조슈아 원



"홍콩 시민들은 한국인들이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오랜 시간 투쟁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년여 전, 촛불집회는 주말마다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끝내 원하는 결과를 이뤄냈죠. 이 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촛불집회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조슈아 원, (2019년, 당시 22세)

2021 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_청년(靑年)팀
2021.10.12(화)

TITLE

해외사례

02

이집트

민주화혁명

SNS: 민주화 운동에 활용되다.

페이스북 그룹, 혁명의 본부이자 온라인 광장

혁명의 도화선이 되어준 유튜브, 페이스북

2010년 한 청년이 부패 경찰의 마약 거래 현장을 촬영했다가 고문으로 사망.

이를 폭로하기 위해 페이스북 그룹(온라인 광장)을 만들었고 민중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

2021 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_청년(青年)팀	2021.10.12(화)
CONCLUSION 01 현 민주주의 경향	CONCLUSION 02 앞으로 청년이 가져야 할 과제
이러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전세계는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사회적 부조리의 고발이 빈번해짐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짐 시민의 의견 수렴이나 집단 행위가 더 쉬워지는 경향 대표적인 예) 국민청원, 촛불집회 등	청년이 청년(푸른날: 민주주의를 꽃피운 시대)에서 그들이 채우고 있는 온라인 광장을 더욱 더 발전시켜야 함 이는 청년(푸른날: 민주주의를 꽃피운 시대)이 끝나지 않기를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SUMMARY



이번 탐방이 가져오는 의의 : 온라인 광장의 발전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꽃피울 것 그러한 책임은 곧 청년에게 있음을 밝힘

이는 청년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밝힙니다.



함께걸음 아자아자

김우진 김민혁 김태현



제주로 가자!!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긍정의 힘을 가지고 생활하는 20대 초반입니다. '함께걸음 아자아자'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저희는 아픔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장애지요. 시각장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청년들끼리 뭉치면 누구의 도움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민주야 여행가자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졸업 여행을 계획 중이었는데 민주야 여행가자 포스터를 보고 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탐색하며 우정 여행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모듬 소개

안녕하세요. 함께 걸음 아자아자 팀은 대학 마지막 학기 즉, 사회원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청년입니다. 2021년 초부터 졸업 여행으로 제주도여행을 떠나자고 계획하였습니다.

민주야 여행 가자 홍보지를 보고 나서 힐링 여행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기회가 있을 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민주야 놀자 프로그램에 계획되도록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을 가면 뜻깊은 여행이 될 거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한편으로 역사적 배경의 지식을 쌓을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았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면 현재보다 참여한 후에 역사에 대한 지식 더 생기며, 국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애국심이 생길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초기 계획에서 변경한 탐방 보고

초기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강화로 탐방한 후 제주도로 우리나라의 3.1운동, 4.3운동에 대해서 탐방을 하고자 하였는데 19 코로나 거리 두기 격상으로 인해, 모임 인원 제한이 있어 제주도를 못 가게 되므로 4.3운동 탐방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장애물이 있어 그 일정에 거리 두기 하향한 강화> 여수> 전주 순으로 탐방을 하였습니다. 4.3운동에 대한 탐방은 못하였지만, 3.1운동 기념비 운동가들에 노력 등을 안내표를 보며 답사하였습니다.



1일차 강화도 : 강화성당, 3.1운동 비, 부평공원 소녀상

강화 성당

강화성당에 시작은 병인박해(1866) 이후 강화도 지역에 다시 신앙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은 이 아가다라는 교우를 통해서였다. 서울에서 살던 이 아가다의 부모가 병오박해를 피해 충청도 홍성으로 이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병인박해 때 순교를 하게 된다. 이에 부모를 잃은 3남매는 유리걸식을 하다 두 남매는 어린 나이에 죽고, 이 아가다만 강화도로 오게 된다. 1871년, 이 아가다는 외교인 김해 김씨와 관면혼배를 하고 대산리 3번지 돌모루에 살면서 남편을 세례받도록 했다. 그 후 이 아가다는 딸 김부영 루이사를 9살 되던 해에 제물포 본당 구내 샬트르 바오로 수녀회가 운영하고 있던 보육원으로 보냈다. 보육원에서 자라던 김 루이사가 17세 되던 1909년, 당시 답동본당 주임 드뇌(1873~1947) 신부는 루이사와 영종도 교우 안일만 바오로를 혼인하도록 하였다. 1922년 봄, 안일만 가족은 강화읍 대산리 돌모루로 이사하여, 슬하에 안영진(일명 순흥) 아가다와 안경옥 필립보, 안경남 라

우렌시오 3남매를 키우면서 신앙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즉, 오늘날 강화본당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이 아가다와 그녀의 딸 내외가 살며 전교활동을 하던 대산리 마을은, 한국전쟁 후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현재는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강화 3.1 독립만세운동비

강화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은 3월 12일과 13일에 교내에서 시위를 벌여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위가 촉매제가 되어 3월 17일 강화도에서는 3.1 만세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 유봉진 선생을 결사대장으로 한 7인의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따라서 2~30대 기독교 감리교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다음날인 3월 18일 유봉진 선생은 백마를 타고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대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며 비폭력적으로 시위가 진행되었기에 현재 강화3.1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여 2011년 8월 9일 용흥궁 공원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부평 : 부평공원 소녀상

인천 평화의 소녀상은 300만 인천시민 분들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뜻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역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자 반드시 기억하고 끝끝내 극복해야 할 역사로 기억하고자 2016년 10월에 세워졌다.





2일차 이순신공원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여수 : 이순신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여수시가 일제강점기 광복을 위해 투쟁했을 때 순국한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 40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여수 웅천 하나로 공원에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을 조성하였다. 즉, '불멸의 비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기념탑은 높이 17m 규모로 승리의 영문 V자와 3.1독립운동의 '만세', 여수반도 지형의 '나비'를 상징하는 세 가지 형상을 담고 있다. 여수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기념비를 보면 여수에서 활동한 의병들은 대체로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40명 등 수십 명을 단위로 대일 항쟁을 전개하며 이처럼 소규모 부대를 운용한 이유는 유격투쟁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일본 군경의 활동을 분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3일차 동학혁명기념관, 전북독립추념탑

전주: 동학혁명기념관

동학혁명기념관은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3.1운동가분들을 기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외부부터 내부까지 독립운동가들에 희생 등을 담고 있는 기념관이며, 한옥마을 안에서 독립운동가들에 희생과 애국심에 정보를 담아갈 수 있는 기념관이다.



전주: 전북 독립추념탑

전북 독립추념탑은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기억하며 순국하신 전북 지역 애국 열의 공훈을 선양하고, 추모하기 위해 1994년 7월 21일에 건립하였다. 즉, 2004년도에 전북 출신 독립유공자 현창비(588명 각인)를 건립하여 후손들에게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는 역사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국가보훈처에서는 본 추념탑을 2003년 9월 15일 현충 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탐방하며 느낀 점

김우진 팀장

2020년 민주야 여행가자 캠프를 통해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하는 독립운동가분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기념비 소녀상 등을 답사하니, 답사지에 담긴 뜻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야 여행가자 프로그램이 참여를 안 했으면 기념비 소녀상 등에 대한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지에 담긴 뜻도 알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주야 여행가자에 대해서 감사한 점은 역사탐방을 하면서 더운 날씨가 상당히 힘들었지만, 힘들다는 표정과 말투로 팀원들에게 표현을 안 하여 감사했고, 참여하는 동안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어서 감사했습니다.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관계자님 감사합니다.

김태현 팀원

독립운동가들에 희생한 곳을 탐방하며 청년이 될 동안 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민주야 여행가자를 통해 느꼈으며 조금은 창피하다고 생각하였다. 독립운동가를 기념한 기념비, 소녀상 등을 탐방해보니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소중히 여기신 수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을 기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한번은 우리 지역 인천에 있는 유적지 등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장소를 탐방해야 되겠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2박 3일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민혁 팀원

민주야 여행가자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전에는 역사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생각을 깊게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번 민주야 여행가자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 여수, 전주에서 일어난 3.1 운동 역사를 기념하는 곳에서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한 독립운동가를 생각해 보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며, 또한, 역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여 후손들에게 역사에 대하여 알리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민주야 여행가자 프로그램만 아니었다면 여행으로 힐링 여행으로만 다녔을 건데, 민주야 여행가자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공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디딤돌

임종윤 신아영 배민주



예비 선생님들의 청년 민주주의 역사 바로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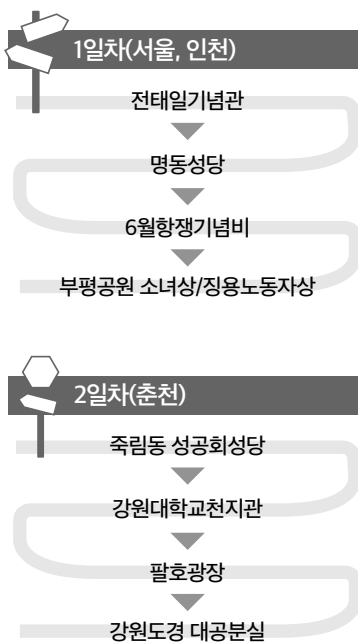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안녕하세요! 이번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에 지원하게 된 '디딤돌'조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치열하게 빛나던 역사 속에서 지금의 우리와 같은 청년들, 대학생들은 어떻게 함께 했는지 더 깊게 알고 공부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미래의 교육현장에 몸을 담게 될 예비 선생님으로서 꾸밈없는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올바르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모듬 이름이 '디딤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탐방을 통해 직접 느끼게 될 역사를 오래 기억하고 이를 미래의 교육현장에서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 아이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서 아이들이 직접 역사를 통해 반성하고 발전해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을 모듬 이름에 담아보았습니다. 이번 현장탐방을 통해서 직접 느끼게 될 생생한 현장들은 장차 우리와 함께할 학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열정 있고 알차게 탐방을 실천하겠습니다!!



■ 동기

민주화 운동의 치열하게 빛나던 역사 속에서 지금의 우리와 같은 청년들, 대학생들은 어떻게 함께 했는지 더 깊게 알고 공부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미래의 교육현장에 몸을 담게 될 예비 선생님으로서 꾸밈 없는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올바르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모듬 이름이 '디딤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탐방을 통해 직접 느끼게 될 역사를 오래 기억하고 이를 미래의 교육현장에서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 아이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서 아이들이 직접 역사를 통해 반성하고 발전해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을 모듬 이름에 담아보았습니다. 이번 현장



탐방을 통해서 직접 느끼게 될 생생한 현장들은 장차 우리와 함께할 학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말을 언제나 명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2021년을 살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과거 민주화 역사 속의 청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또 목소리를 내고 바르게 알려야 할지 다짐하기 위해서 이 현장탐방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민주화탐방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현장에서 과거의 그 날을 직접 반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만 현재의 여러 사건들에 더욱 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교육현장에서도 이러한 기억들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에 불씨가 되어줄 수 있는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에 꼭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 탐방 주제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지, 그 생생한 역사를 함께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청년 민주주의 역사 현장을 찾아서 인천-서울-전라도 순서로 탐방을 떠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여러번 오고 가는 것이 위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 명의 조원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탐방지로 수정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인천의 주요 민주화역사 현장을 보고 난 후, 춘천으로 이동합니다.

교통편

- 지역별 대중교통 활용 (지하철, 버스 등)
- ITX (용산 - 춘천역)

1일차

전태일기념관

올해는 한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청년 전태일의 사망 51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생을 바친 전태일의 희생으로 세상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소식,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고들, 마땅한 휴게공간도 없이 열악하게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 등 여전히 나아가야 할 길이 한참인 듯합니다. 전태일 기념관은 과거 노동의 현장이었던 청계천을 따라 걷다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진정서를 활자로 새겨 넣어 건축되어있습니다.

‘전태일의 어린시절과 ‘전태일의 눈’, ‘전태일의 실천과 ‘전태일의 꿈’으로 카테고리 나눈 3층 상설전시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극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 등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시설들이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실제 그 시절 제봉공장의 다락방을 재연한 공간이었습니다. 1960~1970년대 평화시장의 어린 여공들은 하루에 15시간 이 넘는 시간을 그 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다락방 천장은 너무도 낮아서 허리를 세울 수도 없었고, 환풍시스템이나 빛이 들어오는 곳이 없어서 많은 여공들은 폐병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미싱바늘에 찔려서 손을 움직일 수 없게 되기도 했습니다. 전태일은 버스비를 다 털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밥을 챙겨먹지 못하는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었고, 2시간이 넘

게 쌍문동 집으로 걸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비인간적인 노동현장에 전태일은 재단사 친목모임 ‘바보회’를 만듭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듭니다. 전태일 기념관에서는 바보회 설립부터 노동투쟁을 하면서 전태일이 적어왔던 서류들과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습니다.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와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의 사진들도 전시되어있습니다. 이소선 어머니의 청계피복노동조합에 대한 자료들과 여러 연대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명동성당

1987년 6월 10일, 신세계 앞 로터리와 퇴계로, 명동 주변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던 학생, 시민, 노동자 등 800여 명이 명동성당을 집결하였습니다. 명동성당은 80년대 초반부터 시위의 마지막 집결지였고, 광주 민중항쟁을 널리 알리게 된 중요한 시발지였습니다. 신세계 앞 분수대 광장을 메우고 시위를 했던 학생과 시민들은 전경들에게 밀려 명동성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6월 10일 밤부터 15일 오전 11시 해산하기까지, 명동성당으로 몰려와 농성을 시작한 시위대는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크게 번졌습니다. 87년 당시에는 왼편으로 좁은 계단이 있었고, 차가 다니는 오른편의 길도 비포장 상태였습니다. 시위대는 그 맨 아래 언덕 초입에서 밤새 투석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성당 앞마당에는 5.18과 호헌을 규탄하는 대중집회가 열렸습니다. 87년 당시에는 시위를 하다가 평온함을 찾으며 기도를 올리거나 잠시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삼엄함과 국가의 폭력적인 제압으로부터 농성자들에게 명동성당은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6월항쟁기념비문

부평 6월항쟁 기념비

부평역 광장 앞 '6월 항쟁 기념비'를 방문하였습니다. 앞서 방문하였던 부천 소사경찰서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민주 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대표적 민주화운동 이기에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기에, '6월 항쟁 기념비'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새기며 이번 민주기행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1987년 6월 인천에 울려 퍼졌던 '그 때, 그 자리, 그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외침을 기억합니다."라는 기념비의 문구를 보며 대한민국의 민주화역사에 대해 무지했던 지난 모습에 대한 반성과, '그들의 뜨거운 외침에 다시 한 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광장 한 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념비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또한 이번 민주기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평역 광장에 '6월 항쟁 기념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고, 직접 방문해보니 많이 지나다니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민주열사들이 후손들을 위해 이룩해주신 이 땅의 민주화를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 실천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부평공원 정용노동자상 앞에서

부평공원 소녀상/정용노동자상

부평공원을 돌아보면 넓은 트랙의 맞은편에 소녀상과 정용노동자분들을 기리는 동상이 있습니다. 당시의 처절했던 상황들과 역사적인 기록들이 비석과 조각동판에 그려져있습니다. 아픔의 역사이지만 여전히 그 날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일차

죽림동 성공회성당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처참하게 탄압되었던 피의 역사적 공간이 있다면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의 안식처가 되었던 공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운교동 성당은 1980년대 춘천과 강원도 민주화 운동의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광주 민중항쟁 희생자 추모 미사'가 열렸으며, 1987년 고 박종철군 추모 및 고문종식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성당에서도 탄압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죽림동 성공회성당 인근에는 흥사단, 기독교 인권위원회 등 수많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고 박인기 추모비와 박헌구 추모비, 한림대학교 출신 노동운동가원오복의 추모비, 6월 항쟁 당시 한림대학교 총 학생회장 김요섭 군의 추모비 등이 있습니다.



죽림동 성공회성당 추모비





강원대학교 천지관 앞에서



강원도경 대공분실 현장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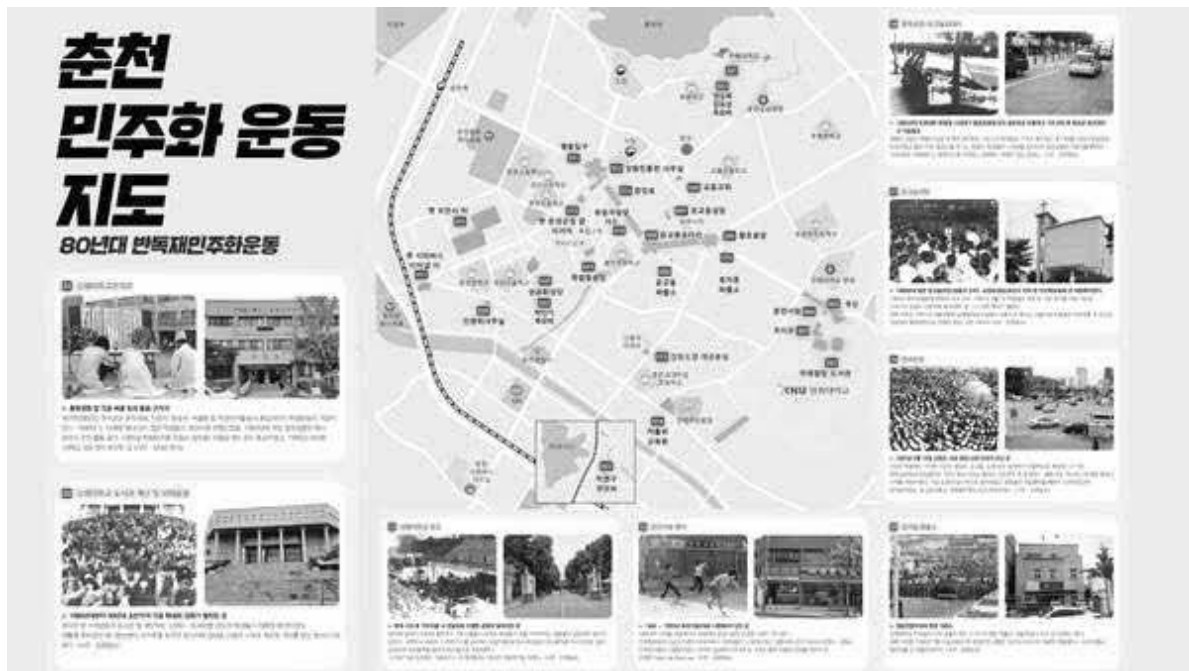
강원대학교 천지관

총학생회 및 각종 단체 등의 활동근거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제 1 학생회관인 천지관은 총학생회, 신문사, 방송국 등 학생자치활동의 중심지이자 학생운동의 거점이었다고 합니다. 1980년 5.18 계엄확대 당시 많은 학생들이 보안사에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춘천 민주화운동의 근간이 바로 학생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강원도에서 큰 대학이 있었던 춘천에서의 1970~1980년대 대학생들은 신군부의 폭력적인 탄압과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상, 1987년 박종철 열사의 죽음 등을 목격하고 직접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학원민주화운동 시 김래용 군과 1990년 이미희 양이 분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80년대 학생운동 첩보를 수집하려는 정보경찰의 활동지이기도 했습니다.

강원도경 대공분실

1980년대 운동권 학생들에게는 끔찍한 기억의 장소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 5월 18일 신군부 보안대가 강원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를 불법적으로 연행해서 무자비한 고문을 행했던 장소입니다. 이 강원도경 대공분실은 1979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 1982년 반미시위를 벌였던 운동권 학생들이 경찰조사를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대공분실에서 나오면 바로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버렸다고 합니다. 실제 대공분실을 찾아가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도상에는 나오지 않았고 겨우 택시 기사님들과 인근 주민분들에게 물어서 이동하면서도 그 어떤 표지 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역사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경 대공분실 앞에 당시의 현장 사진과 함께 안내판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강원경찰청 효자로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외부인은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계자들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민분들이 대공분실을 설명하면서 길을 따라 가다가 보면 삼엄하고 스스로 작아진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높은 벽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멘트칠이 되어있어서 상당히 엄숙하고 온기없는 느낌을 받았습니

다. 고개를 꺾어서 들어가 겨우 보이는 건물의 윗부분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당시의 고통과 억압의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결론

학생운동의 근거지들을 찾아보고 예비 선생님으로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를 반추해보고자 서울, 인천 그리고 춘천을 방문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출입해보거나 더 다양한 탐방지를 돌아보는 것에는 제한이 있었지만 그날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들을 찬찬히 둘러보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광주 대신 탐방하게 된 춘천에서 느꼈던 점은 상대적으로 민주화 역사에 서울이나 광주 등에 비해서 강원도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 했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학생운동이 치열하고 다 함께 모여서 연대하고, 저항하면서 당시의 순간들을 함께 기억해나가는 모습들이 인상깊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역사적 공간들을 더욱 다양한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안내 책자나 표지판 등을 잘 구성해두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선생님으로서 앞으로 만나게 될 학생들에게 역사에서 저항의 순간들과 그 숨결을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인천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값진 기회를 주신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파크루

진수진 송경진 송권일



오월을 노래하다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저희는 인천의 문화예술과 교육에 종사하는 청년들입니다. 자신의 작품에 당시 사회상과 생각(민주화정신)을 담은 시인들의 흔적을 쫓아 여행해보고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정신을 문학에 담은 작가의 흔적을 찾아 인천과 광주, 곡성을 탐방해 보고자 합니다. 인천의 박영근 시인, 광주의 김남주 시인, 곡성의 조태일 시인의 문학을 통해 당시 사회 배경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인천의 안과 밖, 나의 내면 안과 밖을 여행하는 팀 '안파크루(안팎으로)'입니다! 저희 안파크루는 본래 이번 여행에서 민주시인의 흔적을 찾아 보는 여행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휴관과 일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여행주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980년 광주의 5.18민주화운동 -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한열기념관 - 현재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를 탐방하며, 80년대부터 현재까지 민주화의 역사를 '잇는 길'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탐방일정

1회차 : 광주 2021.8.27 • 2회차 : 서울 2021.9.27 • 3회차 : 인천 2021.9.28

첫 번째 탐방 광주

2021년 8월 27일

첫번째 탐방지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광주의 #518기념문화센터 입니다.

5.18기념문화센터에서는 5.18민주화 운동의 기록을 담은 상설전시와 함께 기획전시를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는 1층에서 기획전시 '없는 일을 만들어-서가' 진행중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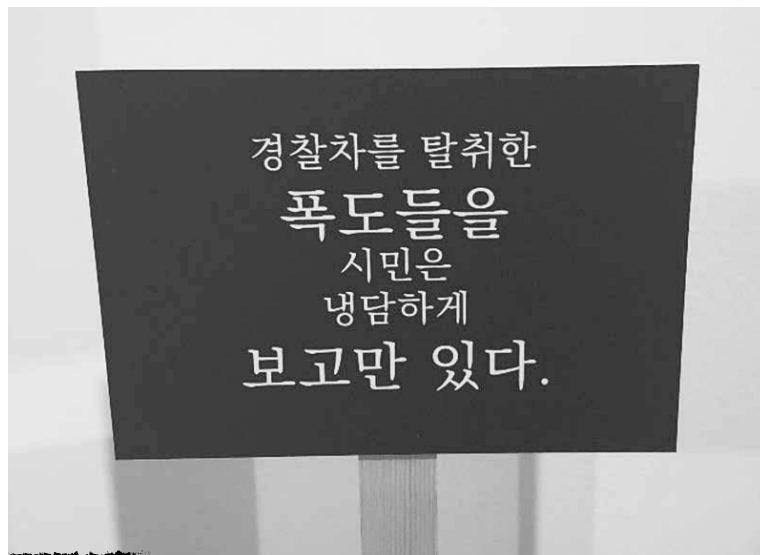


‘없는 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80년 오월의 아픔과 상처는 없는 일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
됐을지 모른다.” ‘없는 일을 만들어서’ 전시 개요 중 발췌

전시 개요의 이 첫문장을 읽고 너무나 많은 과거와 현재의 왜곡과 편향이 떠올랐습니다.



고유진, 송미경 작가님의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80년대 당시 언론에서 행해진 왜곡과 편향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주었을까?

또 현재 언론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지금의 나는 '냉담하게 보고만 있는 시민'은 아닐까?

여러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시였습니다.



1층의 기획 전시를 본 뒤에는 2층의 상설전시관 '오월기억저장소'에 갔습니다.

상설전시관 입구 한 켠에는 미안마 군부 쿠데타 타임라인과 함께 사진전이 작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금도 투쟁하고 있을 미안마 시민들의 모습이 아 뜨게 다가왔습니다.

상설전시관에는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책과 음악, 영상 등 다양한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저희 팀원들 모두 광주mbc 제작영상 '내 인생의 오일팔' 정혜신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영상을 통해 아픈 사람들, 소리없이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적cpr(심폐소생술)을 계속 이어오신 이유와 과정을 짧게나마 듣게 되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당시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코너가 있어 잠시 '그날이 오면'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노래를 듣는 것 만으로도 마음 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가득 차오르는 기분, 또 한편으로는 평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파크루 팀원 권일은 '오월, 광주에서 보내는 안부' 코너에서 오월의 광주 시민을 떠올리며 한 편의 글을 적었고, 저희는 그 글을 함께 읽으며 생각을 나눴습니다.



2021. 8. 27 권의 편지

그리운 날들의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지 못하다 마구 떠들어대는 저와 같이
 안녕하지 못하다 부르짖을 것 같아 마음이 아려옵니다.
 여기 광주는 8월 27일. 그것도 2021년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오늘도 당신의 오늘도 안녕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 안녕을 위해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미얀마, 시리아, 알레포, 팔레스타인 등 죽어가는 사람들이
 떠오르면 말이죠.
 저도 나름 하루를 알차게 살아간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순 없어요.
 민주주의를 위한 하루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요.

첫 번째 탐방 서울

2021년 9월 27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각자 바쁜 일상으로, 광주 여행 이후 한달 만에 민주주의 현장탐방 두번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두번째 탐방지는 서울의 #이한열기념관 입니다.

5.18광주 민주화운동에 이어 1987년 청년 이한열의 발자취를 '잇는 길'을 떠나보고자 했습니다.

사실은 서울 '신촌'이라는 곳은 저에게 평소 친구들과 놀러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안파크루 팀원 경진이 "신촌에 이한열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볼까요?"라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말이죠. 청년 이한열의 이야기를 이미 이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과거와 현재를 연결 지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장소나 기록을 직접 접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한열기념관 3층에서는 2021 특별기획전시 '여기에 잇다'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전시 제목 '여기에 잇다'는 '역사는 우리안에 있다'라는 뜻과 '과거와 현재를 잇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있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동은의학박물관과 주립희 기자가 기증한 유월항쟁의 모습을 담은 사진기록과 함께 현재의 청년들이 만든 랩(rap)과 시화, 이한열 추모동아리 '열의 걸음' 인터뷰 영상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연세대학교 선배님 고 이한열 열사에게 바치는 노래>, 서제후, 이제호, 김채영 rap 뮤직비디오

과거의 투쟁을 통해 현재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떠올릴 때면 한없이 감사하고, 대단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또,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그 투쟁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면 더더욱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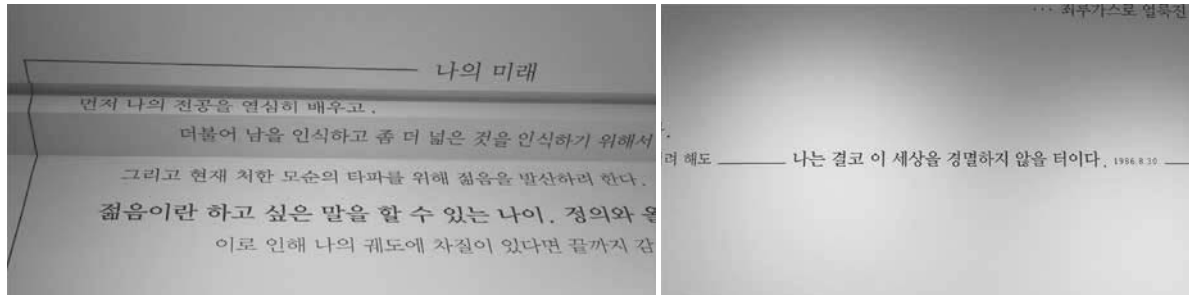
우리의 오늘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이 오늘에 닿지 못한 청년 이한열과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떠올릴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이한열기념관 4층에는 이한열 열사 상설전시가 있습니다.



글 이성우 / 그림 최민주 시화 <한열> 중





이한열 열사의 생애에 대한 기록과 사진, 또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 등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시와 노래를 사랑하던 청년 이한열의 공책에 담겨있던 글귀가 현재를 살아가는 저에게 물음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젊음이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나이.
정의와 올바름을 위해 투쟁하고 싶다.
이로 인해 나의 궤도에 차질이 있다면
끝까지 감수하면서 투쟁할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지내고 있는가?”

“세상을 경멸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한열 열사가 저에게 묻는 것만 같아서 한없이 부끄럽고, 경외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열이를 살려내라!’ 판화를 엽서에 찍을 수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9일

오후 5시, 연세대학교 정문 앞.

시위를 하던 이한열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최루탄에 맞은 학생이 혼수상태에 빠지는 이 사건은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27일 동안 병상에 누워 있던 그는 7월 5일, 22세의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는 직선제를 비롯한 민주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한열 기념관 엽서 발췌





2021.9.27 권의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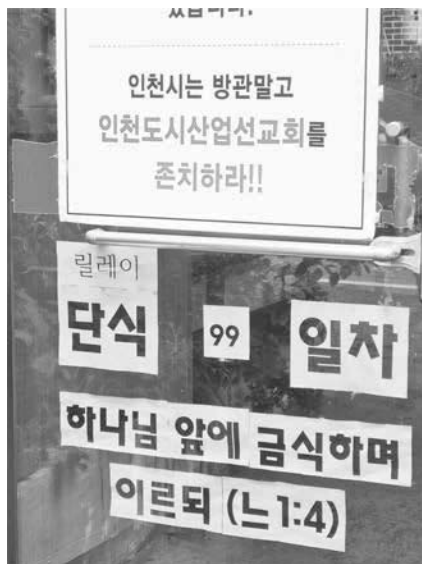
수많은 것들이 사라져 간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간다.
 어떤 사라져 가는 것들이 기억되고
 어떤 사라져 가는 것들은 잊혀진다.
 어떤 젊음이 사그라져 갔을까.
 어떤 열정과 투쟁이 잊혀졌을까.
 수많은 이한열들이 울분을 토하고 피를 흘렸다.
 지금도 어떤 젊음과 열정과 투쟁이 관심받지 못하고 잊혀지고 있겠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화력발전소,
 고된 노동에 노출된 노동자들,
 전쟁의 위협을 높이는 핵무기 개발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젊음과 열정과 투쟁이 필요하다.
 피를 토하며 토론하고 함께 참여해야 한다.
 멈추지 않고 나아가 현재를 살아내야 한다.
 응급실로 실려가면서도 삶을 위한 투쟁을 걱정하던
 젊은 이한열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

첫 번째 탐방 인천

2021년 9월 28일

어느덧 2021년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저희 민주주의 현장탐방도 마지막 회차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민주주의 현장탐방을 마치며 현재 우리의 일상에 맞닿아 있는 민주주의 현장,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인천 화수/화평 재개발 지역에 묶여 60여년 간 인천 노동운동의 장이 되어 온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철거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김도진목사님과 김정택 목사님께서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존치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진행하셨습니다. 현재는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릴레이 단식이 이어져, 저희가 방문한 9월 28일은 단식 99째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마침 이 날은 (릴레이)단식 100일째를 맞는 다음날 진행될 2021 노동문화제 진행팀께서 리허설을 하고 계셨습니다. 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활동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나의 하루, 나의 일생을 노동운동을 하며 보낸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노동운동’

‘단식농성’

흑자는 역사책이나 옛날 신문에서 보던 단어라고 할 법한 일들이 현재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부르짖음의 현장은 때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밝은 에너지로 가득한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런 에너지를 만 들어가는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1961년도부터 조용구, 윤창덕 목사님과 조지 오글 선교사님의 산업선교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문의 일꾼교회 현장에 방문하시면 현재까지 60년간 이어온 산업선교 활동에 대한 사진과 글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 인천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을 진행하며 자료조사를 하던 중 70년대에 쓰여진 조태일 시인의 시 한편을 알게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한 휴관으로 조태일문학관에는 방문하지 못했지만, 이 시를 읽으며 저는 인천도시산선의 현재가 떠올랐습니다.

발바닥이 다 닳아 새살이 돋도록 우리는
 우리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숨결이 다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리도록 우리는
 우리의 하늘 밑을 서성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야원 팔다리일망정 한껏 휘저어
 슬픔도 기쁨도 한껏 가슴으로 맞대며 우리는
 우리의 가락 속을 거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버려진 땅에 돌아난 풀잎 하나에서부터
 조용히 발버둥치는 돌멩이 하나에까지
 이름도 없이 빈 벌판 빈 하늘에 뿌려진
 저 혼에까지 저 숨결에까지 닿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 지필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숨결을 보텔 일이다,
 일렁이는 피와 다 닳아진 살결과
 허연 뼈까지를 통째로 보텔 일이다,

- 국토, 창작과 비평, 1975. 조태일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 운동의 산실로
 서의 역사 유산이자 문화적 가치를 가진, 선교회 건물의 존치를 원합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서 저희는 "현재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함께 생각을 키우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
 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안파크루의 고민

“청년 책모임을 만들까요?”

“신문읽기 모임을 만들까요?”

“우선은 내일 있을 노동문화제를 봅시다!”

아직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잇는 길이 될지 잘은 모르겠습
 니다.

그치만 이번 탐방을 통해 함께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 함께 생각하
 고, 이야기하고, 행동할 동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r.ph

최성관 권범진 이석주



서울에서 인천 그리고 제주까지 민주탐방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전원이 인하대에 재학 중인 철학과 학생으로 이번 기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이번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8월 4일 서울 남산 안기부 터, 8월 11일 인천 부평 6월 항쟁 기념비, 마지막으로 8월 18일 제주 4.3 기념공원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당연한 모습이지만 지도자를 직접 선거로 뽑는 제도가 뿌리 내린 것은 불과 약 30여 년 전부터입니다. 지금 우리는 투표소에 가서 우리가 직접 투표를 하지만 과거에는 체육관에서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합리함을 극복하고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많은 역사적인 변곡점을 거쳐 현재 동아시아에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지수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분명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렸던 과거의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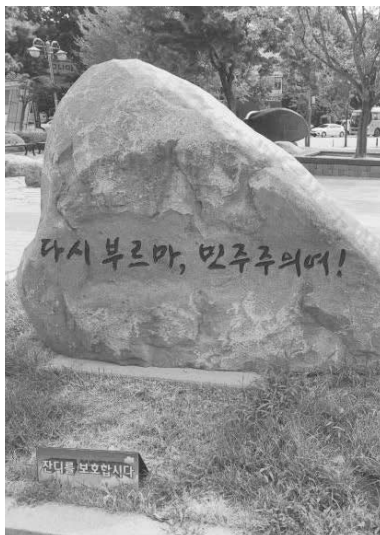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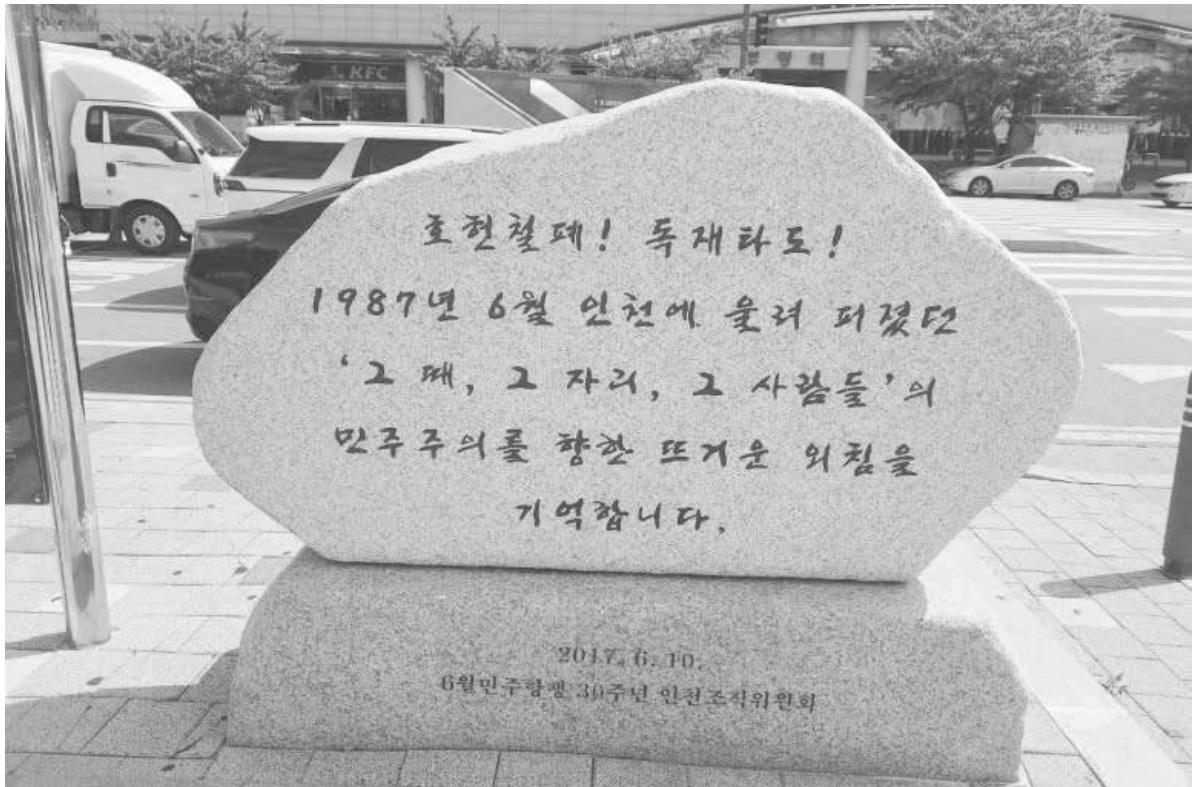
그렇기에 저희는 이러한 피 흘린 '과거'에 초점을 맞추어 탐방을 계획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으로부터 시작되어 6월 항쟁으로 귀결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아픔은 아직 역사책의 한 구석에 문자로,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탐방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기록으로만 마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마추하기로 생각했습니다.

■ 시작에 앞서

우선 탐방에 앞서 탐방 계획을 짜기로 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안내문에 올라와 있던 탐방지의 위치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정한 모토에 알맞은 장소가 어디인지 생각해보면서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계획을 정하면서 우리의 팀명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고민도 하였습니다. 우리 세 명 모두 철학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했고, 이번 탐방을 단순히 경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민주주의 조사하기(Democratic research with philosophy)'라는 의미를 담아서 'Dr.ph(닥터 피에이치)'라는 팀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 탐방을 향한 저희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계획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지역	장소
8/4	인천	부평역 6월 민주항쟁 기념비 인천 5.3 민주항쟁 터
8/17~8/18	제주	제주 4.3 평화공원
9/22	서울	남산 안기부 터 명동성당



인천 편

2021년 8월 4일

탐방의 시작은 바로 인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학교가 인천에 위치해 있고, 인천 지역에 민주주의와 관련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져서 탐방 장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저희가 정한 장소는 바로 '부평역 6월 항쟁 기념비와 인천 5.3 민주항쟁 터였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인천 지역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 흔히 알게 된 지역들은 광주나 부산-마산, 서울과 같은 도시들이었고 광주에서의 5.18 민주항쟁, 부산-마산 지역에서 벌어진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수많은 민주화 운동들에 대한 기억들이 매우 유명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천 지역을 탐방하면서 이러한 생각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탐방 첫날에 저희는 오후 한 시경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매우 더운 여름날이었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기에 나름 떨림이 가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부평역에 모이고 나서 우선적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첫 번째 탐방 장소인 부평역 6월 항쟁 기념비로 향했습니다. 부평역 6월 항쟁 기념비는 당시 부평역 앞에서 이루어졌던 6월 항쟁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입니다. 장소가 생각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어서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평역 6월 항쟁 기념비에서 사진을 찍고 인천 지하철을 타고 시민공원역에서 내렸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탐방 장소인 인천 5.3 민주항쟁 터는 시민공원역 출구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곳에서 야권 진영과 당시 군사정부의 규합을 비판했던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거리에는 한가로운 일상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인천지역에서 벌어진 5.3 민주항쟁은 6월 민주항쟁의 불씨를 지핀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군부 정권과 일부 야권 세력이 야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경계하려던 다른 야권 세력이 이에 항의하고자 모인 사건이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5.3 운동은 당시 군경의 진압으로 해산되었지만 이 작은 불씨가 6월 항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핀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자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천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다시 발굴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 편

2021년 8월 17~18일

8월 17일 저희는 제주도에 방문했습니다. 제주도에 방문한 주된 목적은 아직 우리나라에 민주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시절 발생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저희가 향한 곳은 제주 4.3 평화공원이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멋진 풍경을 가진 공원이었습니다. 비록 더운 날이긴 했지만 그만큼 하늘은 맑았기에 공원의 훌륭한 조경, 흥미로운 조형물 그리고 청록색의 당당한 건물은 저희를 설레고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공원에서 사진을 몇 장 찍고 앞서 서술한 청록색의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 건물은 제주 4.3 평화 기념관이었습니다.

기념관에 들어선 저희는 체온 측정과 방문자 목록 작성까지 했지만 선불리 전시관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전시관의 입구가 마치 동굴이나 탄광과 같이 어둡고 좁게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두운 입구에서 과거 4.3 사건 때 제주도민들이 겪었던 공포감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입구에서 저희는 몇 번이고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하였지만 결국 위화감을 떨쳐내지 못한 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체감 상 꽤나 길었던 입구를 잔뜩 긴장한 채 지나고 나서야 익숙한 전시관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설 때 쯤 되니 특이한 입구 덕분인지 방금 전까지 있던 들뜬 마음은 사라지고 엄숙한 태도로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시관의 처음 주제는 근대까지의 제주도의 역사와 4.3 사건 이전의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경음악으로 총소리들이 나오더니 4.3 사건들에 대한 소개들이 이어졌습니다. 4.3 사건 발생 배경부터 사건의 전개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등등 많은 내용이 글과 사진 그리고 조그만 모니터 안의 영상자료로 흘러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다 구경하려면 중간에 휴게실과 화장실까지 필요할 정도로 자세하고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실물 크기로 복원된, 당시 사람들을 가둘 때 사용했던 유치장과 그 유치장에 앉을 수도 없이 서 있기도 어려웠을 정도로 가득 갇힌 모습을 표현한 인물 모형과 사건 당시의 잔혹함이 느껴질 정도의 매우 상세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은 수많은 인터뷰 영상 자료였습니다.

인터뷰 영상 자료에 나오던 '무명천 진아영 할머니'에 관한 영상은 더욱 마음에 심금을 울리게 하였습니다. 당시 토벌대의 총격으로 아래턱을 소실한 할머니의 모습은 그 당시에 벌어졌던 사건의 진상이 어떠한지 알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저희는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공원의 기념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위령탑이 세워져 있었으며 당시 희생되었던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석판들이 위령탑 주변에 있었습니다. 석판 하나하나에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판들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묵념을 하며 제주 4.3 평화 공원에서 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서울 편

2021년 9월 22일

마지막으로 저희가 탐방을 한 지역은 한국의 수도이자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한 '서울'을 탐방했습니다. 그 중 저희는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명동성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억압한 공간인 '남산 안기부 터'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과거 안기부가 위치해 있었던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유스호스텔에 가 보았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과거 안기부 서울시지부로 사용되었으며 서울 유스호스텔은 중앙정보부 본부였습니다. 남산 일대의 터를 돌아보면서 저희는 과거 국민의 민주주의에 관한 열망을 억압한 곳이자 고문 및 인권유린이 자행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이 깨끗이 사라져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아마도 건물이 리모델링되었고 용도도 다른 역할로 바뀌어서 그럴 것입니다.



저희는 이 터를 둘러보면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관심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과거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잔혹한 고문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한 그들의 의지를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거 안기부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숭고함을 기리는 공간이 있었으면 더 뜻 깊었을 것 같다는 감상평을 남기며 저희는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안기부터와 바로 붙어 있는 통감관저터와 경술국치 터를 다녀왔습니다. 통감관저터와 경술국치 터는 과거 3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에게 당시 대한제국의 총리대신 이완용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한제국의 자치권을 넘겨준 치욕의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기억에 터가 서울 유스호스텔 옆에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제국주의와 국수주의라는 흐름에 의해 일제가 자행한 인권, 민주주의 유린에 다시 한 번 분노했으며, 이를 잊지 말자고 다짐하였습니다.



남산 탐방을 마치고 저희는 민주주의의 쉼터이자 성지인 명동성당을 방문하였습니다. 명동성당은 단순히 한국의 천주교 성당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이룩하고자 한 무수히 많은 민주주의자들의 쉼터였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Dr.ph팀은 명동성당을 답사하면서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군부독재에 맞선 학생들을 보호하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겼습니다.



경찰들이 성당에 들어온다면 제일 먼저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농성 중인 신부님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뒤에는 수녀님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녀님들 뒤에 있습니다. 그들을 체포하려면

나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을 짓밟고 가십시오.

- 김수환 추기경

저희는 이 문구를 생각하며 김수환 추기경님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으며, 명동 성당은 단순히 종교적인 장소가 아닌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동 성당은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맞게 군부 독재에 맞서 자유를 쟁취하고자 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Dr.ph의 인천 청년 민주주의 탐방 '서울' 탐방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에는 일제로부터 자주권과 대한의 인권을 지키고자 한 공간인 '서대문 형무소',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의 역사를 내포한 '전태일거리' 등 한국의 민주주의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코로나19라는 현재 상황 상, 모든 곳을 둘러보지는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Dr.ph팀은 서울 탐방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의 산물과 이를 이어나갈 후손으로서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결론 및 생각정리

이렇게 저희는 매우 긴 시간 동안 차츰차츰 이루어진 탐방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탐방을 통해서 우리가 방문했던 수많은 현장들이 과거에는 시대적 아픔을 품었던 장소였고 한 편으로는 사람들의 이상과 꿈을 품었던 장소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적인 제도를 매우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느꼈던 것은 민주주의가 단순히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평등 의식 그리고 자유를 증대시키는, 미래로 나아가게끔 하는 정치체제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방향을 반대로 돌려서 과거에 발생했던 역사적 비극을 다시 조사하게 하고 그 아픔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정부에 의해 벌어진 악행들이나 비극적인 사건들이 정식으로 조사될 수 없었지만 민주주의 정부 수립 이후 우리는 과거에 벌여졌던 역사적 비극들(보도연맹 사건, 제주 4.3 사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시민사회를 발전시킬 원동력일 뿐 아니라 과거에 상처를 입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조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래는 과거의 희생을 통해 발전하지만 동시에 희생한 이들을 치유함으로써 더욱 탄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인천 청년 민주주의 탐방>은 단순히 과거의 장소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는 새로운 경험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탐방을 도와준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자이크

강소원 김다은 이은선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여러 가지 빛깔의 타일을 조각조각 붙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모자이크와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 이루어진 지금의 우리나라 민주화가 닮았다고 생각하여 팀명을 모자이크로 정했다.

우리 팀은 현재는 각자 다른 대학교로 진학하여 재학 중이지만 고등학교 시절 역사에 관심이 많아 역사 탐방 동아리를 함께 하며 좋은 추억을 쌓은 경험이 있다. 대학생이 된 지금 다시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며 자주적으로 역사 탐방을 기획하고, 경험하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다.

■ 팀 소개 및 탐방 목표

우리 팀은 현재는 각자 다른 대학교로 진학하여 재학 중이지만 고등학교 시절 역사에 관심이 많아 역사 탐방 동아리를 함께 했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광주에 방문하기도 하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사실 고등학생 때에는 역사 답사가 대체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며 학습하는 경험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누구보다 5.18 민주화운동에 열정이 있었고, 이를 알리기 위한 활동까지 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시절의 답사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의 우리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던 대학생들과 같은 위치가 된 현재에는 과거와 달라진 시각으로 민주화운동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한 각자 다른 대학교와 다른 학과에 진학하여 각자 다른 경험의 시간을 쌓았기에 서로 다른 시선과 생각으로 민주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시 한 번 뜨거운 80년대 광주로 가보고자 했다.

또한 방송 예정이었던 드라마 '설강화'의 시놉시스가 민주화 역사를 왜곡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것을 보며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동시에 전 세계로 수출되는 문화콘텐츠에서 민감한 역사 주제를 함부로 이용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 역시 역사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민주화운동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역사 인식도 다시금 바로잡는 시간을 갖고자 했다.

그리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대학생의 시선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 뿐만이 아닌, 현재 우리가 재학 중인 수도권 지역의 민주화 운동까지도 되짚어 보고 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이바지하고자 <대학생의 이름으로>를 주제로 하여 답사를 준비했다. 또한 여러 가지 빛깔의 타일을 조각조각 붙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모자이크처럼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시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모여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여 팀명을 <모자이크>로 정했다.

하반기 방송 예정인 '설강화'는 시놉시스 일부가 유출되며 독재 미화와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이 일었다. 남과 간첩과 민주화 운동을 하는 대학생이 스토리에서 섞여 '5·18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선동해 일어났다는 공안 정부'의 주장을 역사적 사실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 2021. 05. 18. 스포츠 경향 이선명 中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현장으로

전남대학교

우리의 광주 일정의 첫 번째 행선지는 전남대였다. 전남대학교는 5.18 민주화 운동의 발원지로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전남대학교는 민주·인권·정의, 그리고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내 민주화 운동의 정신, 인물, 장소들의 기념공간을 정비하고, 이들을 하나로 잇는 둘레길 같은 문화공원 개념의 '민주길'을 조성했다. 우리는 그 중 정의의 길 코스를 따라 걸으며 1980년대 다양한 이들의 발자취를 살펴보았다. 정의의 길 코스는 전남대 정문으로 시작하여 박관현 언덕, 윤상원 숲, 김남주 뜰, 교육지표 마당, 벽화마당, 5.18 광장, 박승희 정원, 용봉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답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남대 정문

전남대 정문은 개교 이래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었던 학생들이 함께 민주화를 외쳤던 장소이며, 무엇보다 5·18민중항쟁이 시작된 곳이다.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군인들이 전남대를 장악하자 18일 오전 10시, 박관현 총학생회장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학생들이 정문 앞에 모여들었다. 학생들은 학교 출입을 막는 계엄군과 충돌했으며, 이후 금남로로 진출해 시민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면서 민중항쟁이 시작되었다. 이후에도 전남대 정문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학생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가권력이 충돌했던 곳으로, 그 이후에는 민주·인권·평화의 상징적 장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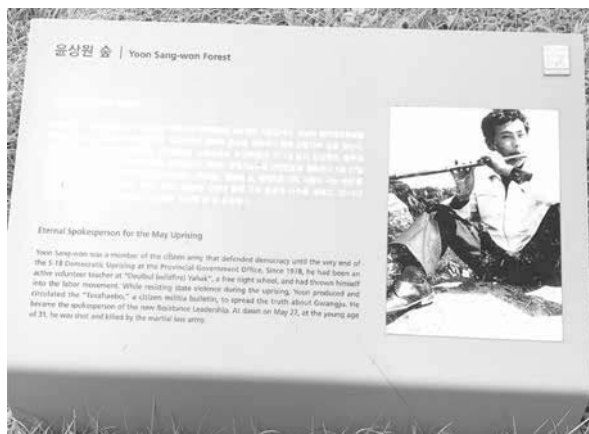


박관현 언덕

박관현은 신군부의 반인권적 폭력에 죽음으로 저항했던 민주열사이다. 1978년 전남대 법대에 입학한 그는 사회조사연구회 부회장과 들불야학의 강학으로 활동하며 학생운동의 길에 들어선다. 1980년 4월 학우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박관현은 탁월한 연설과 지도력으로 민족민주화성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이는 5·18 민중항쟁의 직접적인 동력이 되었다. 5월 17일 수배령이 내려져 도피생활을 하던 박관현은 1982년 4월 체포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이후 '5·18 진상규명과 재소자 처우 개선'을 위해 50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이다 1982년 10월 12일, 30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전남대는 그의 치열한 저항정신을 기리기 위해 1989년 법대 앞에 혁명정신계승비를 세우고, 2020년 '박관현 언덕'을 조성하였다. 박관현 열사의 희생이 주는 깊은 울림을 전하기 위하여 물결을 형상화하여 언덕을 조성하였으며,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자 자연석과 장대석을 사용했다.

윤상원 숲

윤상원은 5·18민중항쟁 당시 도청에서 최후까지 민주주의를 사수했던 시 민군이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윤상원은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한국사회의 불의와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 운동가의 길을 걷는다. 1978년부터 들불야학의 강학으로 활동했으며, 노동운동에 투신하였다. 5·18 당시 윤상원은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투사회보'를 제작·유포하였고, 새로운 항쟁지도부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격에 31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전남대는 '진실된 삶, 정의로운 사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윤상원 열사를 기리기 위해 2007년 사회대 앞에 그의 흉상과 비석을 세웠고, 2019년 윤상원 열사 기념홀을 건립하였으며, 2020년 '윤상원 숲'을 조성했다. '님을 위한 정원'으로도 불리며 윤상원 열사에 대한 기념이 아닌 '기억'을 통해 당시의 윤상원 열사를 위로하고자 조성했으며 윤상원 열사의 흉상의 시선 방향으로 중심축을 선정하였다.



김남주 딸

김남주는 민주주의와 민족해방을 위해 독재정권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민중 시인이다. 전남대 영문과에 재학 중이던 그는 최초의 반유신 투쟁을 위한 지하신문 <합성>과 <고발>을 제작·유포하다가 1973년 구속되었고, 1979년 남민전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15년 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1974년 '창작과비평' 여름호에 '젓더미', '진혼가' 등을 발표하며 시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김남주는 가혹한 옥중상황에 굴하지 않고 시 쓰기를 계속했다. 김남주가 남긴 510여 편의 시 중에서 360여 편이 옥중에서 씌어졌으며, 그의 시편들은 반독재투쟁의 현장에서 민중의 구호와 노래가 되었다. 전남대는 김남주의 치열한 저항행위와 고귀한 시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9년 김남주 기념홀을 건립하였고, 2020년 '김남주 딸'을 조성했다.

5.18 광장

도서관 앞 봉지 주변에 자리한 5·18광장은 1980년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시위와 집회가 개최되었던 민주화운동의 기념비적 장소이다. 1980년 봄, 학생과 시민들은 이 광장에 모여 함께 민주화를 외쳤고, 이후에도 5·18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확립, 평화통일과 참교육 실현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었다. 나아가 전국의 대학생, 교사, 노동자, 농민들이 5·18광장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거나, 박관현, 이한열, 이철규, 신장호, 강경대, 박승희 등 민족·민주 열사에 대한 추모 의례를 열기도 했다. 전남대는 민주화의 열망과 외침이 가득했던 이곳을 기념하기 위해 2020년 '5·18광장'을 새롭게 조성하였다. 5·18광장은 기존의 정형적 화단 형태의 단차를 없애고 평지로 조정하여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형성해 각종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5·18광장 내 봉지는 전남대의 중심공간을 흐르도록 설계되었으며, 민주화 물결의 시작점임과 동시에 광장 내 수로를 통과하여 정문까지 민주화 물결이 이어지도록 연결하였다.

5월 열사 기억정원



10일간의 항쟁 동안 계엄군은 광주시민들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전남대 학생 4명이 희생되었다.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현장에서 김광석(행정학과 3학년)이 총격으로 사망했으며, 5월 27일 도청에서 서호빈(화학공학과 2학년)과 류영선(화학공학과 2학년), 그리고 이정연(상업교육과 2학년)이 최후까지 항전하다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전남대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하신 광주시민과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전남대 4명의 열사를 기억하고자 2020년 '오월열사 기억정원'을 조성하였다. 민주열사들이 수호하고자 했던 자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도청에 모인 시민군을 상징하는 의미로 자갈을 포설했으며, 중앙에 오석반사경을 설치하여 꺼지지 않는 불굴의 저항정신을 불씨로 표현하고자 했다.

소감

전남대학교는 5.18 민주화 운동이 처음 시작된 장소로,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있어 중요한 사적지 중 하나이다. 전남대학교는 학교 전체를 다 둘러보는 것도 벅찰 정도로 큰 규모의 학교였다. 또한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등교하지 못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캠퍼스를 둘러보는 내내 나의 새내기 시절이 생각나고 그리울 정도로 이상적인 캠퍼스의 모습이었다. 지금은 다른 대학교와 다른 평범한 대학교의 모습이지만, 1980년에는 학생, 교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외치며 이 넓은 캠퍼스를 가득 채웠을 생각을 하니 조금 먹먹해졌다.

고등학생 때 수학여행으로 전남대학교를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같은 경로로 전남대학교를 둘러보았던 적이 있었지만, 느껴지는 것들과 드는 생각들은 그때와 사뭇 많이 달랐다. 고등학생 땐 대학생의 신분으로 국가의 폭력에 대항하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지키려고 하였던 분들이 위인전에서 불 법한 위인들처럼 굉장히 대단해 보이면서도 그 대단함에서 오는 약간의 괴리감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쳤던 분들과 비슷한 나이가 돼서 그 분들의 삶과 업적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헤아려보니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용기 있고, 대단한지 다시금 느껴볼 수 있었다. 전남대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장소에 갈 때마다 여전히 드는 생각은 '나도 그럴 수 있었을까였다. 무자비한 국가의 폭력 앞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건 나밖에 없을 때 죽을 각오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내가 내 자신도 아닌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 성인이 되면 나도 그분들과 같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여전히 용기를 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생 땐 막연하게 우리도 성인이 되면, 혹은 대학생이 되면 그분들처럼 정의롭지 않은 것에 항상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더 자유로운 만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만큼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포기하고, 책임져야 할 것들도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행동인지 성인이 되고 난 후 더욱이 느끼게 되었다. 아마 1980년에 전남대학교를 가득 채웠던 그 분들도 지금 우리가 느낀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 행동으로 인해 내가 책임지고 감수해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넓은 전남대학교를 빼곡하게 채웠다. 이 사실이 전남대에 있는 동안 나의 행동과 생각을 반성하게 하고, 부끄럽게 했다.

전남도청 & 5.18 민주 광장

전남도청

전남대를 이은 2일차 일정은 전남도청과 5.18 민주광장이었다. 전남도청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였고, 최후까지 시민군이 저항했던 곳이다. 현재 전남도청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알리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항쟁 초기 이곳 도청은 군부독재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와 분노를 표출하는 표적이었고, 이는 “가자, 도청으로!”라는 짧은 구호 속에 잘 응축되어 있다. 계엄이 불법 확대되면서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공수부대는, 집단 발포로 엄청난 희생을 치른 광주시민들의 결사 항전에 쫓겨 5월 21일 오후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하였다. 이후 이곳에서는 항쟁지도부가 활동하였고, 시민수습대책위원회가 수습책을 논의하는 등 시민 공동체의 중심이었다. 이곳은 또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맞서 싸운 시민군 최후의 결사항전지로, 마지막 항전에서 수많은 시민군들이 산화하였다.

5·18 민주광장

5·18 민주광장은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 상징적인 장소이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이 여기 분수대를 연단으로 하여 각종 집회를 열어 항쟁 의지를 불태웠다. 5월 18일 이전 3일 동안 학생과 시민들은 이곳에 모여 대규모 '민족·민주화 대성회'를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 군사통치 종식과 민주화를 촉구하였다 이 집회에는 광주시내 고등학생들도 대거 참여하였다. 5월 21일 계엄군 철수 이후 끊임없이 민주화 투쟁 결의를 다지는 각종 쫓기대회가 열렸던 이곳은 바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낳은 산실이다. 항쟁 후에도 전국에서 벌어진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산화한 민주 열사들의 영혼이 이곳에 들러 시민들 분향을 받으며 전국민의 투쟁 의지를 일깨웠다.



소감

2017년 전남도청에 방문하였을 때는 날씨가 굉장히 맑고 좋아서 광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분수대가 시원하게 맞이해주는 느낌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1980년 5월의 비참함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었다. 광장과 분수대를 볼 때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들이 그 큰 분수대를 가득 채우고 민주화 투쟁 결의를 다지는 모습의 사진이 떠오르는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전남도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 등을 관람할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광장 한 편에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캠페인이었다.

책임자가 권력을 장악한 참혹한 상황에서도 '5·18 진상규명운동과정에서 범국민적 저항으로 승화된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 제2의 광주 공동체 정신을 탄생시켰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학살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기념사업, 배상이라는 5대 원칙이 필리핀의 민중혁명과 태국,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대만의 계엄령 해제 및 민주화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고 동구의 민주화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이러한 점에서 광주항쟁이 기폭제가 된 한국의 민주화는 제3세계 5.18 민중항쟁이 돋보였던 것은 항쟁 당사자들이 폭도로 몰리고 구속되는 암울했던 시절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 독재투쟁에 나섰으며, 마침내 제 3세계의 진정한 민주화를 출발시켰다는 점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서도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항거로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다. 한국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희생과 죽음으로 점철된 과거사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과 성과의 성찰적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언론이나 SNS로 전해지는 미얀마의 상황을 볼 때면 '1980년대 5월의 광주의 상황과 비슷했겠구나.'라고 생각 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21세기 이 세계 어딘가에서 이렇게 참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지만,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나라도 한 순간에 어떤 한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국민들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광장에 5·18 민주화 운동 역사 왜곡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된 전시를 보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명언이 떠올랐다. 역사는 흘러간 과거의 사건이나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 역사가 무서운 것은 반복된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역사를, 반복되는 역사적 사건을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과거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5·18 민주 광장에서 5시 18분에 흘러나오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으며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볼 수 있어서 더욱 더 의미 있었고, 부디 5·18의 정신이 미얀마에게 전해져 미얀마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전일빌딩

우리는 둘째 날 마지막 답사지로 '전일빌딩245'를 방문했다. '전일빌딩245'에서 '245'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245개의 총탄 흔적이 발견되어 이름 붙게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방문했던 전일빌딩은 공사 중 이어서 내부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대학생이 된 지금 방문한 전일빌딩235는 완공되어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전일빌딩은 금남로에 위치한 빌딩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서 피해 숨은 장소로 알려져 있다. 또, 전일빌딩에는 당시 군부에서 헬기 사격을 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중요한 사적지이다.

전일빌딩은245의 많은 전시물 중 총탄 흔적 원형 보존과, 1980년대 당시 금남로와 전일빌딩 중심의 도심과 헬기를 모형으로 해놓은 것을 가장 주의 깊게 보았다. 금남로 일대를 거닐며 느꼈던 감정과는 사뭇 다른, 한눈 금남로 일대를 보며 당시의 참혹한 현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시민들은 옛전남도청 앞 금남로 일대에서 민주화를 외치다 무차별한 총격을 피해 전일빌딩까지 숨어들어 총격을 피했으나, 신군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헬기까지 동원하여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였다. 현재에는 전일빌딩에 수많은 총탄 흔적이 10여 층의 빌딩보다 높은 위치에서 사격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 헬기 사격의 사실이 확실히 되고 있다.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 직후 전일빌딩에서 헬기 사격에 떨던 시민들과 그의 가족 지인 등의 산증인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정부에 도전하는 폭도로 몰리기까지 했다.





전일빌딩245의 맨 위층 전망대에 가면, 옛전남도청과 상무관 등 5·18의 중심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세 명 모두 즐겨 읽었던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었던 상무관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소년이 온다'는 주인공인 동호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상무관에서 시체 닦는 일을 하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여기서 상무관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돌아가신 수많은 사람의 시신을 임시로 안착했던 장소이다. 소설에도 묘사되어 있듯이, 당시 신원도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시신으로 인하여 시체 냄새는 상무관에 가득했다고 할 정도로 시민들은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희생된 시민들의 시체를 보며 또 다른 시민들은 통곡하고 분노하며 민주화 투쟁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그러나 1980년 5월 29일, 계엄군이 상무관까지 점령하고 시체들을 가축의 사체를 다루는 것처럼 청소차에 실려 망월동 시립묘지로 옮겨졌고, 심지어 거리에 나돌던 혹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당한 시민들의 시체는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에 암매장되기도 했다. 상무관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전일빌딩245에서 상무관을 보며 조용히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대학생이 된 지금의 시선에서 바라본 상무관은 과거의 시각보다 나를 부끄럽게 했다. 상무관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아예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의 시체가 있었는데, 5·18 당시의 내가 대학생이었다면 어땠을까를 떠올려보니 역시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역사이지만, 남겨진 유가족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인 5·18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더 많은 사람이 관심 가지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이후의 이야기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

5·18 기록관은 5·18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었던 옛전남도청, 헬기 사격의 아픔을 지닌 전일빌딩, 임시로 시체를 안착했던 상무관 등이 있는 금남로에 위치하고 있다. 5·18 기록관은 5·18과 관련된 당시 자료들과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5·18 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물들을 관람할 수 있었다. 특히 입구에서부터 5·18 당시의 현장을 재현해놓은 듯한 바닥으로 시작하여 5·18의 열흘간의 비극을 자세히 전시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함께 광주로 답사를 하러 간 경험이 있으나, 5·18 기록관에 전시되어 있는 5·18 당시의 일기, 신문, 열사들의 유품들은 우리가 민주화를 당연시하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다.

“그 숫자는 알 길이 없으나 온통 거리와 골목을 그 얼룩무늬 공수부대로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를 중심으로 메워버린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만행에 분노와 살기에 등등한 젊은 때들이 곳곳에서 이들과 대치하고, 쫓고 쫓기고, 붙들리고, 최루탄은 말할 것도 없이 곤봉세례로 매 맞고 짓밟히고, 이제 단검으로 찌르기, 총대로 후려 치기, 옷통 벗기기, 쫓겨 들어간 건물은 한마디로 박살이 나고, 붙들렸다 하면 남녀 관계없이 혹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끌려가고 마침내 거리는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아니, 맨주먹의 시민에게 완전무장된 이들의 난행과 난무는 전쟁이 아니고 순량한 양떼의 무리 속에 뛰어들어 리떼의 침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천유철, 오월의 문화정치 中 407~408-





1979년 10월 26일 유신의 심장을 쏜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며 대한민국의 독재는 끝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했다. 하지만 전두환 일당은 군부를 장악하여 민주화의 열기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에 전남대를 비롯한 10개의 대학의 대학생들은 시위를 벌였고, 교수진과 시민들도 힘을 보태어 주어 평화적인 시위가 계속되었다. 이에 1908년 5월 16일 '햇불 대행진'을 끝내고, 학업에 정진하며 국가의 대답을 기다렸으나, 답은 휴교령과 민주인사의 구속이었다. 이에 전남대 학생들은 5월 18일 학교를 막고 있는 군인들과 투석전을 벌였으나, 계엄군들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시위는 더욱 커져갔고 이에 신군부는 이른바 '충정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광주 시민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5월 21일 새벽, 계엄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시민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시민을 지켜야 할 층은 살상에 분노한 시민에게로 향했다. 이에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가 익히 아는 영화 '택시운전사'와 같이 차량 시위를 시작했고, 목숨을 걸고 시민군으로 무장하여 광주를 지키기 시작했다. 거센 시민군의 저항에 계엄군은 광주를 고립시킨 채로 물러났고, 고립된 광주에서는 높은 시민의식으로 누구 하나 굶거나 가게에 도둑이 드는 일이 없었다. 이후 다시 계엄군은 탱크를 이끌고 들어와 무참히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였고 폭도로 내몰며 당시의 민주화 운동이 왜곡된 채 마무리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의지로 5·18의 진실의 조각이 하나씩 맞추어져 갔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까지 5·18 기록물들이 등재되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조각들은 아직까지도 맞추어지고 있다. 5·18 기록관에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툰으로 전시회를 하고 있었다. 또 기록관 한쪽에는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항거인 5.18이 세계적인 과거사 청산의 모범적인 예로서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인권유린, 평화를 갈구하는 곳에서의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 있음과 우리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운동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전시하고 있었다. 대학생이 된 현재 방문한 5·18 기록관에는 새로운 내용들도 많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였다.

국립 5·18 묘지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공원으로 5·18묘역이라고도 한다.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5·18 민주항쟁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5.18 희생자 묘역을 민주 성지로 가꾸려는 움직임이 뜻있는 국민들로부터 일어났다. 묘역 안에는 5·18영령의 묘 764기(2017년 기준)가 있으며, 건축물 7동(민주의 문, 유영봉안소, 역사의 문, 송모루, 추념문, 관리동, 휴게실)과 역사공간, 민주광장, 참배광장, 전시공간, 상징조형물, 광주민주화운동추모탑, 7개 역사마당(의병, 동학, 3·1운동, 광주학생운동,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통일마당), 현수기념비, 준공기념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묘지는 5·18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당한 광주 시민들의 넋을 기리며, 이 땅에 다시는 불의와 독재가 발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살아 있는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민주 성지를 내손으로 가꾸기 위해 시작한 민주나무 현수운동은 5·18의 숭고한 정신을 국내, 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5·18 묘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사각기둥인 탑신은 높이 40m로 우리나라 전통석조물인 당간지주를 현대감각에 맞게 형상화 했다. 탑신 가운데 감싸 쥔 손 모양으로 중앙에 설치된 타원형 형상은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상징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태양광에 반사된 빛은 희망의 씨앗이다.

소감

광주에는 조금 특별한 버스가 있는데, 80년 5월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리며 싸우던 주요 거점을 매일 순례자처럼 묵묵히 달리는 518번 버스이다. 우리는 518버스를 타고 옛 전남도청, 광주역, 전남대학교를 지나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5·18 민주 묘지는 장소 자체가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더 먹먹하게 했던 것은 나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이 희생당하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이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재 누군가의 평범한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로 좀 더 자유로워진 세상을 누리지 못하셨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다.

또한 구묘지에서는 영화 택시운전사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위르겐 힌츠페터분의 묘비도 볼 수 있었다. 힌츠페터는 독일의 기자이자 언론인으로 독일 제1공영 방송 기자로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을 영상에 담아 언론 통제로 인해 대한민국 내에서는 보도될 수 없었던 광주의 참상을 외국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다. 힌츠페터께서 찍으신 영상은 독일에서 수차례 방송되었고 외국의 다른 언론들도 이 영상을 받아 보도함으로써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힌츠페터분은 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였을 시기에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하였고, 그 이후에 5·18 민주 묘지에 방문하여 힌츠페터의 묘비를 보며 추모하고, 힌츠페터와 관련한 일화를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때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나도 힌츠페터 분과 같이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기로 인해 현재 언론홍보학과에 재학 중인데, 대학생 3학년이 되어 다시 힌츠페터의 묘비를 마주하니 과연 지금 나의 마음가짐은 그때와 동일한가?,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힌츠페터분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 또한 언론홍보학과 학생으로서 또, 나중에 만약 언론인이 되어 국가의 언론인으로서의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5·18 자유공원

우리는 셋째 날의 첫 번째 답사지인 5·18 자유공원으로 향했다. 5·18 자유공원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이 구금되어 군사재판을 받았던 상무대 법정과 영창을 원래의 위치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이곳으로 옮겨와 복원·재현한 곳이다. 5·18 자유공원은 다른 박물관이나 기록관들 처럼 사진과 줄글 위주의 관람물이 아닌, 실제 고문실이나 연병장에 마네킹을 세워 더 생생한 장면을 관람할 수 있게 해두었다. 관람의 순서를 화살표로 표시해 두었는데, 그 첫 번째는 5·18 당시 계엄군이 실제로 사용하였던 군용트럭이다. 가까이서 보았을 때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커 적어도 10여 명의 사람이 탈 수 있어 보였음에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잡혀 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트럭이 모자랄 정도였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5·18 자유공원에는 물고문을 비롯한 다양한 고문들을 했던 취조실, 거짓 증언을 받아내 감옥으로 시민들을 넣었던 법정, 일제강점기 일본이 독립운동가들에게 했던 방식과 같은 부채꼴 모양의 영창 등을 볼 수 있었다. 당시 영창생활은 인간으로서 삶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 서로 같은 민주화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굶주림과 극심한 고문 아래에서 서로에게 눈을 번뜩이고 다툼이 이어졌다고 한다. 친구와 한 번의 다툼도 서로 감정의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데, 그러한 스트레스를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의 생활이었다. 재현해놓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주열사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어떠한 환경에서 살았으며 어떤 심정으로 민주화를 끝까지 외치다 가셨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5·18 자유공원을 관람하며 우리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통곡의 방'이다. '통곡의 방'은 다소 충격적이어서 입장에 제한이 있었는데, 그 내부에는 미국 선교사 베츠헌틀리 목사가 5·18 당시의 참혹한 희생자의 모습과 계엄군들의 만행들을 담은 필름을 전시하고 있었다. 이에 실제 5·18 희생자의 시체 사진과 영상을 관람할 수 있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사진을 보니 그동안 봤던 사진보다 훨씬 충격을 받고, 다시 한번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고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 민주화가 5.18 자유공원에 전시되어있는 상황과 희생들로 살아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다.

고등학교 때도 방문했었던 5·18 자유공원이었지만, 대학생이 된 지금 다시 방문하니 인권 유린의 현장이 더욱 와닿았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저 민주열사들을 고문했구나 정도로 생각했다면, 가짜 진술을 받아낸 법원의 비리를 비롯하여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도 세월호 사태, 촛불시위 등과 연관 지어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알고 공부하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도권에서의 민주화 이야기

서울역

박정희 유신독재 체제가 붕괴하며 찾아온 1980년 서울의 봄은 대학의 공기를 바꾸었다. 학생들은 자유를 만끽하며 공공연하게 교내 집회를 가지는 것은 물론, 각종 학습모임도 공개적으로 운영했다. 학내 민주화운동 역시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학생회가 부활했고, 그와 동시에 학원 내의 잔존 유신독재 찌꺼기를 걷어내기 위하여 비민주적 학칙 개정, 학내 언론의 자율성 보장, 어용교수 퇴진, 병영집체훈련 철폐 등의 민주화 요구가 터져 나왔다.

5월에 들어서자 학생운동 지도부는 투쟁의 목표가 학내민주화 차원에서 '계엄령 해제'와 '신군부 퇴진'이라는 정치투쟁의 방향으로 바뀌는 기세가 보였다.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바로 가두로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중적인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 두 가지로 엇갈렸으나 이내 학생 대중들의 의견은 전자로 기울어졌다. 이러던 중 5월 10일, 전두환 일당은 북한 게릴라 침투의 위협을 핑계로 개헌공청회를 취소하고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체제로의 돌입을 명령했다. 12일, 서울 시내에 병력 배치가 시작됐으나 일부 학생들은 독자적인 가두 진출을 시도했다. 그 결과 13일 밤, 연세대를 주축으로 서울 시내 6개 대학의 2천 5백여 명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에 따라 총학생회 장단은 14일 오전부터 전면적인 가두 시위를 전개하며 7만여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경찰은 시위대를 무력으로 저지하고자 했으나 시위는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계속되었다.

5월 15일, 10여만 명의 학생들이 서울역에 모여 전두환 일당과 최규하 정부를 규탄했다. 서울역 광장 곳곳에서는 연설과 구호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때 총학생회장단은 '시민의 호응이 적은 상태에서 심야에 군부대와 충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위를 중단하였다. 이는 당시 시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유혈이 예측되는 상황이었기에 일단 각 대학으로 돌아가 사회 전반의 민주 세력과 연대하자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열기가 완전히 사그라들기도 전인 5월 17일 자정,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하며 탱크로 무장한 군병력을 주요 도시에 투입했고 전국의 대학에 휴교령을 내림과 동시에 학생 대표들을 연행했다. 이로 인해 서울역에서 일어났던 대학생들의 투쟁은 이른바 '서울역 회군'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다.

당시 학생들이 해산을 결정했던 것은 해산하지 않고 군병력과 직접 충돌한다면 대규모의 유혈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해산 결정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서울은 광주와 달리 외국 대사관이 위치해있고 국내 및 해외 언론을 차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신군부도 광주에서의 경우처럼 선불리 무력 진압을 진행하기엔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하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전두환 세력의 장기집권을 막을 수 있던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





게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늦췄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당시 학생 대중들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던 상태도 아니었고 그렇기에 상황 역시 학생회에서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한다. 많은 인원이 모여 있는 시위대가 과격해지면 계엄군이 진압의 명분을 얻을 수 있기도 했기에 당시 대학생들에게는 해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이다.

소감

서울역은 서울 답사에서의 첫 일정이었다. 비가 와 흐린 서울역 광장은 코로나19 검사소와 근처를 지나치는 사람들로 인해 혼잡했는데도 넓은 서울역 광장은 채 꽉 차지 않았다. 이런 서울역 광장을 가득 채우고도 서울 시내 곳곳으로 넘쳐났을 집회 인원을 떠올리면 당시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가 느껴졌다. 동시에 답사 목표가 대학생이 된 현재에 과거의 민주화 과정을 돌아보는 것이었던 만큼 서울역이라는 장소가 이 주제에 걸맞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껏 평화로운 서울역을 수없이 지나치면서 이곳에 이런 간절한 역사가 깃들어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이 들면서도 어지러운 사회에서 대학생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라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돌아볼 수 있었다. 서울역에서의 집회를 알아보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의견도 접할 수 있었는데, 당시 결정이 민주주의의 퇴보를 불러일으켰다는 의견에도 공감감이 가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마음을 모아 서울역에 모였던 대학생들을 비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생각이 들었다. 다만 독재정권의 억압으로 국민이 고통받던 시대를 생각하면 비판의 잣대가 향해야 하는 곳은 이를 바로 잡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을 멸시하고 괴롭혔던 당시 정권 세력이 아닐까 싶기도 했다. 물론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당시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더 나아갈 길을 내다볼 수는 있겠으나 당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자 한 대학생들의 열정을 생각하고, 지금 그 때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지도 못할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서울역에서의 역사가 '과오라는 단어로만 칭해지는 것이야말로 아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한열 기념관

이한열 기념관은 연세대학교가 있는 신촌에 위치하여 이한열 열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고자 그의 유품을 비롯한 6월 항쟁의 기록을 보존하고 전시하고 있다. 기념관의 옥상에는 최병수 작가의 <꿈> 솟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는 인간의 바람을 신에게 전하는 존재가 새이듯 현실과 이상을 연결해주는 존재를 꿈으로 여기며 이한열 열사의 꿈과 방문한 이들의 꿈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워진 것으로, 날이 저물어 솟대가 보이지 않아도 항상 그 자리에 있듯이 상황이 어려워져도 꿈을 가꾸어 가자는 의미다. 전시실 입구에는 모자이크 작품으로 민주주의라는 꽃에 물을 주는 이한열 열사를 표현함으로써, 민주주의라는 꽃은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폭압을 뚫고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3층 기획 전시실에서는 2021 특별 기획전시로 「여기에 있다」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주립희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당시의 현장 사진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랩으로, 시화로, 에세이로 그려낸 이한열 열사의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4층 전시실에는 이한열 열사가 쓰러질 때 입었던 옷과 신발, 사진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이한열 열사의 연혁과 피격 장면 사진, 중고등학교 시절의 유품과 글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열사의 옷에는 여전히 그가 쓰러질 때 흘린 피가 남아있었다.

1987년 그날의 이한열 열사는 당시 연세대학교 2학년으로, 전국 시위를 준비하는 출정식을 참가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이한열은 그날 아침부터 몸에서 열이 나고 감기 기운이 있어 함께 살던 셋째 누나는 집에서 쉬라고 말렸지만, 그는 '빠지면 안 되는,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며 학교로 향했다. 그날은 어느 날보다도 최루탄이 산발적으로 날아왔고 이상한 각도의 직격

탄들이 유난히도 많던 날이었다. 결국 이 직격으로 발사된 최루탄이 한 학생의 뒤통수에 부딪히며 터졌고, 그는 우연히도 이한열이었다. 이한열은 병원에서 곧 의식을 잃었고, 모두 그가 일어나길 바라며 기다렸지만 이한열은 27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의 사인이 최루탄 피격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되면서 그의 장례가 진행되던 서울광장에는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였다.

소감

중고등학교 시절, 한국사 시간에 민주화운동에 대해 배울 때마다 등장하던 인물 중 한 명이 이한열 열사였다. 교복을 입고 수업을 듣던 우리에게 목숨을 바친 대학생 민주 운동가란 멀고도 대단하며 영웅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어 기념관에서 만난 이한열 열사는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날의 이한열 열사가 22살로 현재의 우리와 같은 나이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그렇기에 그의 희생이 더욱 슬프게 다가왔다. 전시물 중엔 이한열 열사가 어머니와 나누었던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읽자 이한열 열사가 우리와 동갑이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음이 피부로 와닿아 느껴졌다. 편지 속의 그는 먼 고향에서 상경해 가족들의 걱정과 염려를 받으며 학교를 다니던 대학생일 뿐이었다. 만약 우리가 6월의 그날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도 이한열 열이 될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면서 그의 희생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고, 과연 우리였다면 최루탄이 남발하는 길에 나서서 목소리를 외칠 수 있었을지 생각해보았다. 동시에 지금 우리를 비롯한 대학생들의 할 일이 무엇 일지에 대한 고민이 들기도 했다. 1987년 학생들의 가장 큰 숙제는 독재를 물러나게 하고 민주화를 이끄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학교로 거리로 뛰쳐나와 같은 목소리로 같은 마음을 외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2021년 현재를 살아가는 대학생으로서의 우리가 가진 숙제는 무엇일지,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답동성당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열사가 고문사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인천 교구는 <인천주보>에 열사의 죽음을 추모하는 글을 실었고, 1월 26일 오후 7시에 답동, 부평1동, 소사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봉헌했다. 「박종철 군을 위한 추도식 및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실린 「젊은 영혼의 피맺힌 한을 달래는 미사와 그 영혼을 위한 진혼제를 개최합니다. 모든 신자와 시민들은 의로운 양심으로 적극 참여 하여 인간성을 상실한 고문 정권의 잔악성을 폭로합시다.」 글에서도 보이듯 인천 교구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중대한

국가범죄로 인식하여 동시에 지역별 미사를 봉헌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2월 7일에는 서울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고 박종철 국민추도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자 가두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인천 교구는 오후 2시부터 가톨릭회관 6층에서 사제단 명의로 약 1시간 40분 동안 옥외방송을 통해 인천 추도회를 개최했다. 4월 13일 전두환이 호헌조치를 발표하자, 4월 30일, 천주교 인천 교구 사제 39명이 민주 개헌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가톨릭회관에서 단식기도에 들어가 5월 6일까지 농성을 전개하기도 했다.

1987년 6월, 답동성당과 부속건물인 가톨릭회관에서 일어난 6월항쟁은 동일방직을 비롯한 대규모 공장의 노동자들을 필두로 인하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그날의 답동성당은 쫓기는 민주인사와 학생, 노동자들을 품어준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하는 민주화의 성지였다. 이를 보여주듯 성당 경내에는 6.10민주항쟁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소감

<대학생의 이름으로,>라는 주제로 다른 지역의 민주화 흔적을 찾아 답사를 떠났지만, 인천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던 답동성당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답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답동성당을 방문했다. 현재의 답동성당은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뜨거웠지만 처절하고 잔인했던 민주화운동의 발자취를 좇아 온 우리에게 있어 이 평화로운 광경은 당연하고도 소중하게 느껴졌고, 그렇기에 많은 역사를 가진 답동성당의 존재가 더욱 가치 있게 느껴졌다. 동시에 그때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온몸을 바친 사람들의 헌신과 용기를 기억하겠다고 다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탐방하며 느낀 점

강소원

중고등학생 때 한국사 수업을 들을 때면 손에 꼽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민주화운동의 역사였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가슴을 뜨겁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그랬던 내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시각을 조금 돌리게 된 계기는 한강 작가의 장편 소설 <소년이 온다>였다. 내가 책에서 만난 사람들은 오로지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평범했고, 무고했으며, 억울했고, 두려워했다. 서 울역에 있었던 대학생들이 그러했고, 기념관에서 만난 이한 열 열사가 그러했으며, 전남대학교에서 스쳐 지난 학생들과 전남도청 근처에서 스친 행인들이 그러했다. 그것이 다수를 향한 억압과 폭력의 가려진 진실처럼 느껴졌다. 이번 답사를 통해 희생자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유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렇다 해서 고통받거나 죽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그들은 특별한 영웅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친구이자 이웃이고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와닿았다. 답사하는 며칠 내내 날이 흐렸고 비가 왔지만, 그 때문에 찻잔하고 우산을 들고 다녀야 했던 불편함이 오히려 당시 시대의 민중들이 느꼈을 억압감과 답답함을 되새기게 했다. 그때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평화로운 지금이 계속될 수 있도록 현대의 대학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의 대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동시에 소설을 비롯한 드라마, 영화 등의 문화콘텐츠가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대중들의 역사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설강화 역사 왜곡 이슈' 같은 일이 현재에도 일어나는 건 잘못된 역사 인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군사정권 시대의 사건들은 그 역사에 대해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답사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훑고 나니 그에 대한 분노가 더 크게 느껴졌다.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 '재밌으면 다라는 생각으로 덮어두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기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 그저 방관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이런 잘못된 콘텐츠가 나오지 않도록 대중으로서 지켜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김다은

광주에서 시작하여 서울, 인천까지 이어진 '민주야, 여행가자'는 나의 20대의 특별한 경험과 기억 중 하나로 남을 것

같다. 2017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으로 떠났던 광주에서의 3일 덕분에 광주라는 지역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뜻 깊은 장소로 남았었는데, 그 장소에 22살이 되어 다시 와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 성장하였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광주를 다녀오고 썼던 보고서를 다시 찾아 읽어보았는데, 그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느꼈던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더 현실적으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한참 어린일 것 같았던 '대학생'이 되어 1980년 5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시민군의 상황과 마음을 같은 입장에서 헤아려보면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용기 있고 대단한지 다시금 느껴볼 수 있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그때 광주와 같은 상황에 내가, 우리가 처하게 되었을 때 광주에서의 기억으로 나도 조금의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았다. 언젠가 다시 꼭 와보고 싶었던 광주에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지원으로 인해 방문할 수 있어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이은선

고등학교 시절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이에 대학 진학 또한 사학과로 하게 되었다. 나는 무구한 역사 중 현대사, 그 중에서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많은 관심이 있다. 하지만 대학교에 진학하여서는 모순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인 5.18에 대해 고등학교 시절보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이에 이번 민주주의 탐방을 통하여 직접 답사를 기획하고, 과거 고등학생의 시각과 달라진 역사전공 대학생의 시각으로서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의 큰 틀을 답사를 통해 생생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여러 번 찾았던 광주임에도 아직도 모르는 역사가 많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공부를 하지 않은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웠다. 나는 늘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과 같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 처럼 나도 과연 당시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항상 나는 애매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답사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월호와 촛불혁명과 같이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역사에 대학생의 이름으로,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숨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또, 다시는 같은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화운동을 계속 기억하고 추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전서진과 아이들

전서진 김규리 최유식



민주화 운동을 위해 여러 직업군에 종사하신 분들의
정신과 희생을 기리고 탐구해보자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인하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온몸을 불사르고 대동단결을 하셨던 당시 사람들을 기리고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을 거쳐 광주까지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순행하면서 각 장소에 담긴 민주화 정신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민주화운동,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과거의 청춘들과 현재의 청춘들의 소통장, 이한열 기념관

이한열 기념관은 이한열 열사의 유품을 비롯한 1987년 6월 항쟁의 기록을 보존하고, 연구하며 전시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교육하는 박물관이다.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질 때 입고 있었던 티셔츠와 청바지, 운동화 등이 보존되어 있다. 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을뿐더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민주투사들과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6월 민주항쟁을 이끈 대학생들

5.3 인천 민주 항쟁과 10.28 건대 항쟁과 같이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시발점이었다.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 폭로와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망 사건이라는 학생들의 억울한 죽음과 희생은 국민을 단결시켜 범국민적인 시위로까지 확산 될 수 있었던 기점이 되었다. 대학생들로만 구성되었던 시위대에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일명 '넥타이부대로 불리는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그들의 뒤를 이어 시위에 참여하고 민주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었던 것처럼 대학생 만큼 큰 영향을 미친 계층을 우리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故 이한열 열사의 영정



6월 민주 항쟁 당시 취재에 나선
주립희 기자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세계로 알린 주립희 기자

이한열 기념관에서 답사를 진행하면서 이한열 열사와 같은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대학생들의 존재 이외에도 당시 민주화운동을 취재 하던 기자와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대표적인 기자로는 1985년 1월부터 1987년 12월까지 타이완 유력 일간지의 특파원으로서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였고, 6월 민주 항쟁을 목격하고 보도하였던 대만의 주립희 기자가 있다. 광주에서 벌어졌던 신군부 세력의 만행을 세계에 알렸던 '위르겐 힌츠펜터' 기자처럼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립희' 기자 역시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상세하게 취재하고 기록하였다. 그는 6.10 범국민운동본부 결성부터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과정까지 6월 항쟁의 전반적인 부분을 취재하였고, 역사 기록 사진을 전시함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동기 부여의 힘이 되어주고, 역사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민주화운동의 성지였던 명동 성당, 그 중심에 '김수환 추기경' 있었다. 명동 성당은 우리나라 최대의 가톨릭교 대성당이며, 1980년대 당시 민주화운동의 성지였다.



1969년, 추기경에 오른 김수환 추기경은 1971년 KBS로 생중계되었던 명동 성당 성탄 미사에서 “만일 현재의 사회 부조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독재 아니면 폭력혁명이라는 양자택일의 기막힌 운명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며 독재 철권통치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였다.

1987년, 참고인으로 경찰에 연행된 박종철은 고문으로 인해 하루 만에 사망하였다. 경찰은 그의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발표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명동 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집전으로 박종철 열사를 위한 추모 미사가 열렸다.

“너의 아들, 너의 제자, 너의 젊은이, 너의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김수환 추기경의 외침에 이어 사제들은 미사복을 입고 명동 성당 밖으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서슬 퍼런 공권력을 마주한 채 시위대를 지킨 천주교 사제들



명동 성당은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였다.

명동 성당에 농성 중이던 시위대를 정권이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할 때, 시위대를 지킨 사람은 김수환 추기경과 사제들이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여기 공권력을 투입하려면 나를 밟고 가라!”라고 외치며 시위대를 보호하고 그들을 정부로 지켜주고 지원해주었다.

그렇게 6월 항쟁의 승리 뒤에는 명동 성당이 있었다.

명동 성당에서의 외침은 정부의 억압과 규제로 인해 억눌렸던 민주화 운동의 열기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였다고 생각하고, 무력을 행사하던 정부와 계엄군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목소리를 낸 김수환 추기경과 천주교 사제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위에서 언급한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민주화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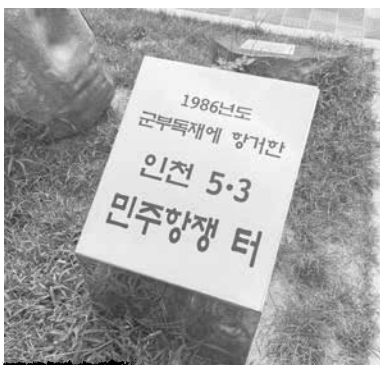
전태일 동상

오랜 시간 동안 평화시장과 함께하는 전태일 동상

전태일 동상은 전태일 열사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였고, 그 결과 분신자 살 사건까지 초래하였던 현장인 동대문 평화시장 입구에 세워진 동상이다. 전태일 열사는 1960년대 평화시장의 봉제 공장의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자 권리를 위해 노력한 한 명의 노동자이다. 그는 재단사로 일하던 중 재단 보조 여공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박봉, 질병 등으로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그러한 노동 현실의 타파와 개선을 위한 길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바보회', '삼동친목회'를 조직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고, 형식적인 근로기준법에 깊은 좌절과 비애를 느껴 결국 죽음으로 그의 뜻을 알리는 길을 선택하였다. 그가 분신했던 그 자리에, 현재 그는 동상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며, 그의 도움을 받은 현재의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발달을 선도한 노동자, 전태일

전태일 열사의 희생을 계기로 대학생들, 지식인 계층, 또한 당사자 집단인 노동자 계층이 각성하게 되었다. 특히 '전태일이 없었다면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은 수십 년 뒤에나 존중받았을 것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치적 의미에서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도시 빈민 등의 삶의 문제들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만약 전태일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들이 편안한 노동 환경에서, 모든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었을지가 의문이다. 다시 한번 그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고, 존경을 표한다.



옛 시민회관 쉼터 공원에 세워진 5.3 인천 민주 항쟁 관련 표석

민주 항쟁의 살아 숨 쉬는 흔적, 옛 시민회관 쉼터 공원

1974년 인천 주안에는 공공집회 및 각종 문화 예술 행사가 활발히 열린 시민들의 문화 공간인 인천 시민회관이 개관하였다. 1980년대에는 군사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불씨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인천 5.3항쟁이 벌어졌던 장소이다. 1986년 5월 3일, 신민당의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 지부 결성대회'에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은 물론 많은 시민이 참여하였는데, 이때 시위대와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했던 사건을 5.3 인천 민주 항쟁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역사의 증인이었던 인천 시민회관 건물은 2000년에 철거되었고 이후 근린공원인 '옛 시민회관 쉼터 공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다.

인천 민주화운동의 중심, **대학생과 노동자**

1980년대 민주화를 요구하기 위해 벌어졌던 여러 민주화운동과 다름없이 5.3 인천 민주 항쟁이 벌어졌던 '옛 시민회관 쉼터 공원'에서도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운동을 전개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인천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민주화운동에는 인하대학교를 비롯하여 인천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운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교내와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동인천역, 제물포역, 주안역, 부평역 등 대형 역들을 중심으로 시위를 주도하였고 진행하였다. 특히 5.3 인천 민주 항쟁은 주안1동 성당에서 약 200여 명의 민통련 회원들이 확성기를 들고 시작한 작은 시위에 주변에 운집해있던 인하대학교를 비롯하여 서울에서 내려온 학생들이 합류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인천 5.3 민주 항쟁은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수도권에서 처음 발생한 최대 규모의 정치적 시위로서, 6월 항쟁을 이끌어 낸 도화선이 되었다.

과거 인천에는 항구 주변에 동일방직을 비롯한 대규모 공장들이 밀집해있었고, 주안, 부평공단들을 중심으로 약 4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인천의 총인구수가 약 140만 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생들, 시장 상인들, 신부와 목사를 비롯한 종교인, 의사와 변호사, 교수에 이르는 전문직까지 다양한 직업과 계층이 참여하였으나 인천 5.3 민주 항쟁은 '노동자들이 최초로

가두 정치투쟁에 나섰던 날로 평가를 받으며 6월 항쟁, 7·8월 노동자 대항쟁까지 이어지는 교두보로 인정받고 있다.



인천 명동성당

인천의 명동성당, **'답동성당'**

답동성당은 인천지역 가톨릭의 중심이며,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답동성당은 각종 집회가 치러지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쫓기던 민주인사들과 학생, 노동자들의 도피처가 되어주기도 하며 인천의 명동성당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그런 만큼 답동성당에서 재직 중이던 신부 중 일부는 민주화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제임스 시노트' 신부와 '김병상' 신부가 있다.

인천 민주화운동의 든든한 지지자,

제임스 시노트 신부와 김병상 신부

제임스 시노트 신부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뒤 1960년 8월 한국에 들어온 후 1961년 답동성당에 파견되었다. 시노트

신부는 1974년 발생하였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



제임스 시노트 신부
김병상 신부

할을 하였다. 당시 내란예비음모,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럿 중 8명이 대법원에서의 상소 기각 20시간 만에 사형 집행을 당하였다. 경찰은 사형수에게 가해진 고문이 발각될 게 두려워 유족의 동의 없이 멋대로 시신을 탈취하여 화장해버렸다. 이때 시노트 신부가 목숨을 걸고 장의차 바퀴 밑에 누워 경찰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당시 정권은 이러한 시노트 신부에게 가혹한 보복을 시행하였고 결국 비자 갱신이 거부되면서 그는 강제 추방당하게 되었다. 당시 천주교 인천교구 교구장이었던 나길모(윌리엄 존 맥너튼) 주교와 함께 인천 민주화운동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던 시노트 신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김병상 신부는 인천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릴 만큼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김병상 신부는 1974년 지학순 주교가 유신독재 비판 후 구속되자 구성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창립 회원이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가장 먼저 알린 단체이며, 정권이 덮으려고 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폭로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등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단체이다. 김병상 신부는 이 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1977년 유신헌법 철폐와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특별 기도회를 주도하다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민주화운동 외에도 동일방직 탄압사건 대책위원장, 굴업도 핵폐기장 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등 사회 운동에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전남도청 앞 민주주의를 외치던 **광주와 전라남도 시민들**

5·18 민주광장은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광주민중항쟁의 현장이다.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청은 항쟁의 본부였고 앞에 있는 분수대를 연단으로 각종 집회를 열었으며 항쟁 의지를 불태웠다. 이곳은 1996년부터 '5·18 민주광장'으로 불리고 있다.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눈 전두환 정권 & 광주 시민들의 시위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 정권의 독재에 반대하며 5월 18일에 민주광장에 모





여 시위를 하였다.

그러자, 군인들은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총을 쏘았다.

이에 광주 시민들은 함께 싸울 것을 결심하고 '시민군' 부대를 만들었으며, 시민군은 예비군 무기고를 열어 무기를 들고 전두환 정권에 대항하였다.

시위대는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마지막 저항을 했지만 5·18 민주화 운동 10일째인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기습 공격으로 결국 막을 내리게 되었다.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

5·18 운동은 전두환의 정권 장악에 맞서 저항한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다.

이 과정에서 150명의 광주 시민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수천 명의 실종자, 부상자가 나왔으며 죄 없이 체포된 자도 수도 없이 많았다.

이곳에 있는 시계탑은 30년 만에 복원돼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한다. 5·18 민주광장에는 매일 오후 5시 18분에 이 시계탑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진다. 이는 당시 광주 시민들에 대한 애도와 그리움 그리고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 5·18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광주교도소 인근의 공동묘지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이 다수 발견되었고, 아직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도 진행 중이다.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독재자와 그 후예들이 여전히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과연 후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았다. 목숨 바쳐 민주화를 되찾기 위해 싸워주신 시민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끝나지 않은 5·18 진상규명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며 광주 시민들과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밝히고 이제라도 진심 어린 사죄를 하길 바란다.



마지막 격전지, 전남도청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탈바꿈된 (구) 전남도청을 찾았다.

5월 18일 '피의 일요일'은 광주를 술렁이게 했고, 19일 날이 밝자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총격에 분노해 거리로 나왔다. 항쟁의 주체는 학생에서 시작해 광주 시민 모두로 바뀌었고, 시민군이 조직되어 계엄군에 맞서 싸웠다.

21일, 시민군은 계엄군의 임시본부였던 전남도청을 점령하였고, 광주 시민들은 식량과 생필품을 나눠 쓰며 자발적으로 질서 유지했다. 항쟁지도부가 생기고 그들의 항쟁은 이어져 나갔다. 계엄군은 5월 26일 오후 6시까지 무조건 투항을 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은 지도부와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

계엄군의 총알은 갓난아기부터 학생들, 노인 등 누구에게나 향했고, 그들은 사실을 숨기려고만 한다.

항쟁 대변인 윤상원은 말했다.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검은 하늘 그날, 전일빌딩 245

광주에 있는 전일빌딩 245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계엄군을 피해 몸을 숨긴 장소이며,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헬기 사격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이다.

전일빌딩 245라는 명칭은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으로 245개의 탄흔이 발견됨에 따른 것이다. 헬기 사격으로 인한 탄흔 흔적은 10층뿐 아니라 3층, 8층 9층 등에서도 발견되었다.

10층의 탄흔은 177개, 그 외의 층에서 최소 55개의 탄흔이 발견됨에 따라 당시 신군부의 무차별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일빌딩 245 내부에는 헬기 사격의 흔적을 복원해놓은 공간들과 당시를 재연하는 영상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눈으로 접한 그 현장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틈 없는 무차별한 총격으로 많은 무고한 광주 시민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현실에 가슴 아팠고, 목격자의 증언과 증거가 입증되었음에도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던 당시 군 정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민주 투사들이여! 더욱더 힘을 내자!! 승리의 날은 오고야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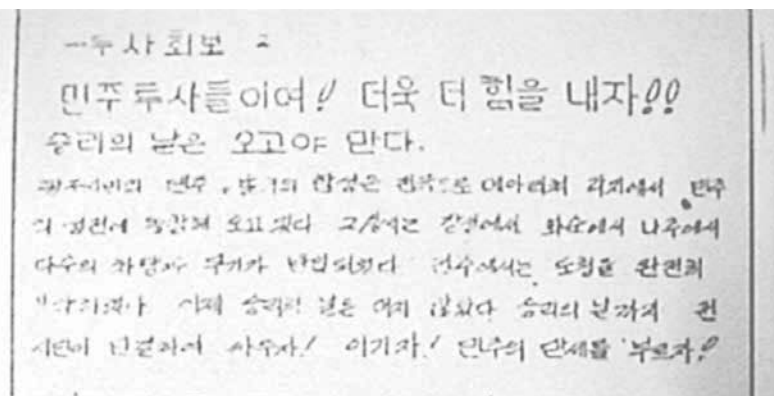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보존하기 위해 2015년에 설립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은 현재까지도 진실규명에 대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은 역사가 간직한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규명과 더불어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고자 기록물 DB화 및 국제 교류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1980년 5월, 타지역사람들은 급박한 광주의 상황을 뉴스를 통해 북한 간첩 사건으로 듣게 된다. 실제로는 남녀노소 광주의 시민들은 계엄군을 향해 민주화를 외치고 있었고, 그에 반해 언론은 외면하고 정부는 광주를 고립시켰다.

시민 대표 윤상원과 들불야학은 첫 등사를 시작으로 학생들의 배포와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투사회보를 발간했다. 투사회보는 YMCA에서도 이어 제



작이 되었으나 계엄군의 공격 장소 중 하나였던 YMCA에서는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된다.

총칼을 들고 맞서 싸운 시민군을 도와 무력한 주류언론을 대신한 '투사회보'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남대 의과대학 학생, 교수, 5월 항쟁 대변인 윤상원

5.18민주화운동에 있어 전남대는 반드시 등장하는 장소 중 하나이다.



당시 전남대병원 의료인들의 증언을 모아 발간한 '5.18 10일간의 야전병원'을 읽어보면, 고 조영국 당시 전남대병원장, 노성만 전 전남대 총장 등 의사와 간호사 총 28명의 증언이 220여쪽에 걸쳐 실려 있다.

책에서 나온 바와 같이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많은 수의 사상자와 계엄군의 병원에 대한 무차별 사격, 밤낮없이 진행되는 수술, 시민들의 헌혈 등 긴박했던 상황들이 이어졌다.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분노, 절망, 공포의 감정을 억누르고 의료인의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이다.



전남대 정외과 출신, 항쟁 대변인이었던 윤상원의 발자취도 따라갔다. 전남대 정문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흉상 하나를 만날 수 있다. 두 손을 턱에 괴고 있는 흉상은 당시 그가 했던 고뇌와 아픔을 느낄 수 있다.

그는 계엄군이 광주를 고립시키자 투사회보를 만들어 배포하고 시민군 대변인이 되어 외신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하며 투쟁 의지를 알렸다. 5월 27일 새벽, 마지막 격전지인 전남도청에서 학생들과 여성들을 미리 대피시키고 시민군과 함께 맞서 싸우다 전사한다.

광주 시민과 전 국민의 염원이 담긴 **중외 공원**

중외 공원은 1980년 광주에서 발생한 참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주 시민들을 위로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모인 성금으로 조성된 공원이다. 국민 성금 약 32억 원, 도민 성금 약 5억 원, 행정지원금 약 13억 원과 함께 온 국민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이 함께 모여 만들어진 이 공간은 현재, 국립광주박물관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등 광주 시민들이 역사와 문화를 읽을 수 있고 함께 호흡하는 열린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며 사랑받고 있다.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80년 5월의 아픔이 아직도 서려있는 광주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송녹죽 가슴으로 꽃히는 죽창이 되고자 한, **김남주 시인**

중외 공원에 자리한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시립미술관을 향하는 길 중간에 김남주 시인의 시비가 놓여 있다. 전남 해남에서 출생하여 전남대학교에 재학하였던 김남주 시인은 유신과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인물이다. 그는 강렬함과 전투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를 써낸 대표적인 혁명 시인 중 한 명이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투옥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신군부 세력, 독재세력에 대한 증오와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는 저항시나 투쟁시를 써서 대중들을 심금을 뒤흔들었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중외 공원 외에도 그가 재학하였던 전남대학교에 조성된 김남주 기념관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그를 기리고 기억하는 공간이 있으니 자신의 시대를 온몸으로 진실하게 살다간 그의 흔적을 되짚어 보는 것을 어떨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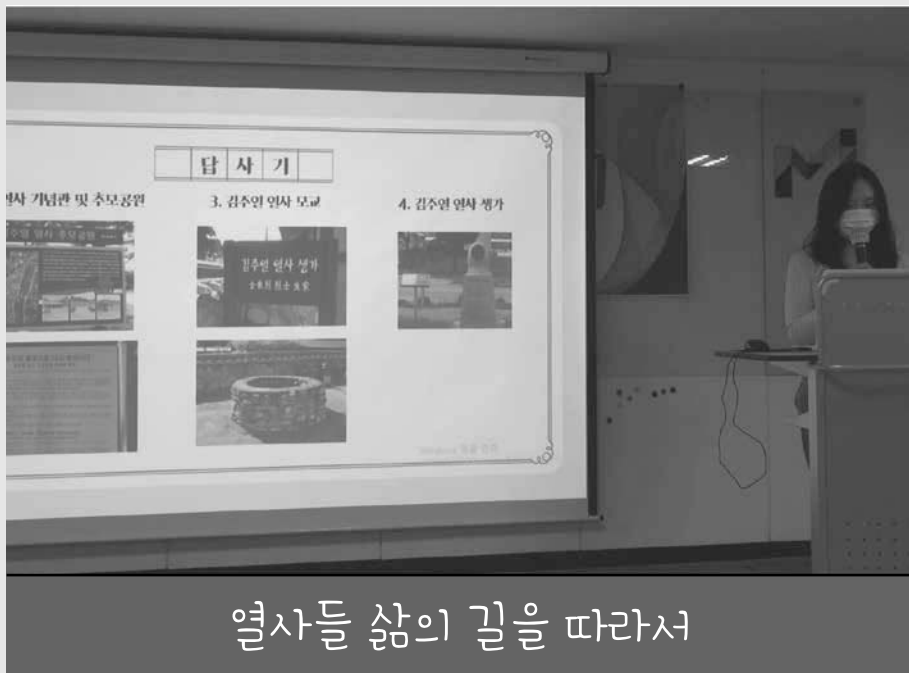
중외 공원



중외 공원에 조성된 김남주 시비

동지들 (同志)

강해주 박세은 전지혜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우리나라는 여러 번의 민주화운동을 거쳐,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의 뜻을 품고 두 발 벗고 뛰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민주화 운동가들처럼, 서로 같은 목적과 뜻을 가진 사람들을 동지라고 말한다. 우리 팀 또한 민주 탐방을 통해 학생 운동가들의 삶을 알아봄으로써 이들을 본받아 사회를 위해 우리의 할 일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하나의 뜻을 가진다는 점에서, 팀 이름을 '동지(同志)'들로 정했다. 최근, 한 뉴스를 보았다.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쿠데타와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뉴스였는데, 그 뉴스가 우리에게 더욱 인상 깊었던 이유는 모듬원들이 현재 모두 사학과에 재학 중이며, 미얀마의 현재 상황이 한국이 민주화를 쟁취해내는 과정과 매우 닮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를 본 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쟁취 과정, 즉 민주화운동에 대해 되짚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생이라는 신분 하에서 자연스럽게 학생운동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그들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열망과 그에 담긴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들의 삶을 따라가 보며, 그들의 생각을 읽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자한다.

열사들의 삶을 따라서

최근, 한 뉴스를 보았다.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쿠데타와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뉴스였는데, 그 뉴스가 우리에게 더욱 인상 깊었던 이유는 모둠원들이 현재 모두 사학과에 재학 중이며, 미얀마의 현재 상황이 한국이 민주화를 쟁취해내는 과정과 매우 닮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를 본 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쟁취 과정, 즉 민주화운동에 대해 되짚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생이라는 신분 하에서 자연스럽게 학생운동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그들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열망과 그에 담긴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따라가보며, 그들의 생각을 읽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자한다.

김주열 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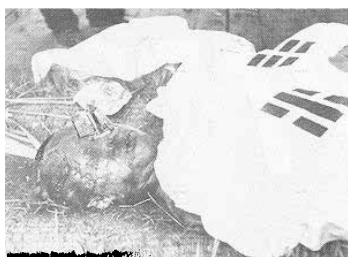
생애

김주열 열사는 1944년 10월 07일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웅정리 9번지에서 아버지 김재계와 어머니 권찬주 사이의 3남 2녀 중 넷째로 출생하였다. 그의 할아버지인 김태종은 해방의 혼란기에 면장을 지냈으며 아버지는 조합장을 지낸 천석꾼 부잣집이었다. 김주열 열사가 어린 나이에 죽었음에도 비교적 많은 사진이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사진기를 가진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주열 열사는 1956년 용지초등학교(현 금지동초등학교), 1959년 남원 금지중학교를 졸업했다. 1960년 3월 11일 마산상업고등학교에서 입학시험을 치르고 돌아와 3월 14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형 김광렬과 함께 마산으로 갔다. 그곳에서 3월 15일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의거에 참가했다가 이날 밤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앞 도로에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때 경찰이 신포동 마산세관 인근인 제1부두에서 열사의 시신에 돌을 매달아 빠뜨려 행방불명이 되게 하였다.

김주열 열사는 실종 27일 만에 오전 11시 30분경 마산시 신포동 중앙부두 앞 바다에서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김주열 열사의 시신 사진은 당시 부산일보의 기자 허종(1924~2008)이 찍어 특종으로 보도되었으며 시신이 김주열로 확인이 되자 마산 시민들의 울분이 다시 터져 올랐다. 이날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4.11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이는 열사의 참혹한 시신이 바다에 떠오른 사건과 더해져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김주열 열사의 묘지는 3곳에 조성되어 있는데, 실제 묘는 고향인 남원시 금지면 웅정리 우비산에 있으며 서울 4.19 민주 묘지와 마산 3.15 민주 묘지



당시 시신의 모습



4월 11일 열사의 사체가 발견되
자 당시 시위에 들어간 시민들

에 각각 구성되어 있다. 그 뒤로 1995년 4월 11일, 입학 예정이었던 마산 상업고등학교의 명예졸업장을 받았고 이는 김주열 열사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또 2010년 4월 11일, 열사의 시신인양지에서 50년 만에 '김주열 열사 범국민장'을 거행하였다.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우리 팀은 마산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합포구 중앙부두에 있는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인양지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3월 15일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마산 3.15의거 시위 중 행방불명되었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이다. 행방불명 된 지 27일 만에 이 시신 인양지의 바다에 떠오른 열사의 시신은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끔찍한 모습이었다. 이 사건과 4.11 항쟁이 전국으로 퍼져 마침내 4.19 혁명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이곳을 '4월혁명 발원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곳은 2011 9월 22일 경상남도의 기념물 제277호로 지정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주화운동 관련 장소가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다.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점 표지판, 추모의 벽, 시신 인양지 안내판, 김주열 열사 벽화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순)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에 들어서면 먼저 안내판이 보인다. 안내판에는 열사의 생애와 업적이 적혀있고, 안내판 위에는 열사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최루탄이 박힌 눈을 감싸고 올라가는 곡선은 '민주주의의 부활'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시신 인양지 설명문을 볼 수 있었다. 또 김주열 열사 추모의 벽이 있다. 이 추모의 벽에는 김주열 열사에 대한 추모시, 추모곡, 약력 등이 있다. 또 3.15의거, 4.19혁명으로 희생당한 188명의 열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나와 있다. 우리 팀은 열사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곳을 직접 밟아보니 열사의 이른 죽음이 와 닿았고, 열사 및 그 가족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았다. 특히 우리 '동지들'은 188명의 희생당한 열사들의 얼굴과 이름을 한 명 한 명 보며 이들을 기억하고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열 열사 기념관 및 추모 공원

다음으로 우리 팀은 남원으로 이동하여 김주열 열사의 추모 공원을 다녀왔다.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은 열사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10년간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곳이다. 이곳에 들어서면 추모 공원이라는 표지판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또 4.19 혁명 추모 기념관과 녹지공원이 있었다. 추모 공원에 온 만큼, 우리는 김주열 열사를 비롯한 4.19 혁명의 영웅들을 기리고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김주열 열사의 기념관에서는 추모관과 김주열 열사의 묘지를 볼 수 있었다. 열사의 당시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고, 열사의 당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새삼 열사의 요절을 체감하였다. 또한 기념관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김주열 열사의 동상을 눈에 담을 수 있었다. 추모 공원과 기념관의 방문을 통해 우리는 김주열 열사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



입구에 있는 추모 공원 표지판



추모 공원 내부의 열사를 설명하는 글



입구의 표지판



열사 생가 내부의 우물

김주열 열사 생가

다음으로 우리는 김주열 열사의 17년 간 흔적이 묻어 있는 열사의 생가를 다녀왔다. 이곳은 기념사업회에서 열사 서거 50주년을 맞이하여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자 복원한 생가로, 열사의 생가의 입구에는 '김주열 열사 생가'라는 표지판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서 꽤나 크고 멋진 기와 형태의 집을 볼 수 있었다. 열사의 생가는 문간채와 본채 아래채를 모두 갖춘 커다란 집이었고, 내부에 장독대와 우물이 있었다. 또한 내부에는 김주열 열사의 생가에 대해 설명하는 표지판이 있으며, 그 표지판에는 열사의 생애가 잘 기록되어 있다. 열사가 어렸을 적부터 자라고 생활해왔던 생가를 직접 보니 한편으로는 신기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열사를 잃은 가족들의 심정을 다시 떠올려보며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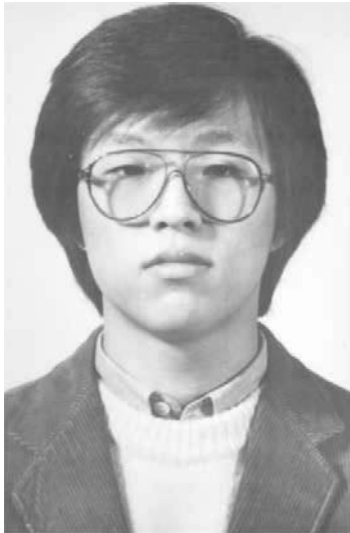
김주열 열사 모교

마지막으로, 우리 '동지들'은 열사의 모교를 방문하였다. 열사의 모교는 금지동초등학교, 금지중학교인데, 우리는 금지동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금지동초등학교의 교문을 들어서면 '우리 선배 김주열'이라는 비석을 볼 수 있다. 이 비석에는 열사의 의로운 행과 이 학교 후배들의 큰 다짐이 적혀있었다. 이곳에서 우리도 열사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목표들을 세워보았다. 비록 크지 않은 목표들이었지만, 열사를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후배들의 다짐을 담은 비석

박종철 열사



생애

박종철 열사는 1965년 4월 1일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에서 아버지 박정기와 어머니 정차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토성 초등학교, 영남 제일중학교, 해광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4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입학하여 학생회장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중학교 3학년이던 1979년 10월, 부산-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유신독재에 반대하며 부마항쟁이 일어났다. 그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시위 대열에 합류하였고 시위 도중 최루탄 가스를 뒤집어쓰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부마항쟁의 경험은 그에게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서강대 운동권이었던 박종철의 형 박종부의 의연한 모습과 그가 보던 서적은 박종철이 이후 대학교에 진학해서 학생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박종철이 입학한 1984년은 당시 학생운동을 이완시키고자 전두환 군사정권이 추진한 '학원자율화조치'로 제한적이거나 열린 공간이 형성된 시기였다. 박종철은 '대학문화연구회'라는 비공개 동아리에 가입하여 민중지향적인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3학년 때는 과 학생회장을 맡아 언어학과와 인문대 학생자치활동에도 앞장서면서 학생운동의 선봉에 섰다. 그는 전두환 군사정권의 폭압에 저항하는 가두투쟁,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에 연대하는 민중연대투쟁 등에 앞장섰고 그 결과 구류를 살기도 했으며, 1986년에는 전태일 열사의 혼이 담겨있는 청계피복노조 합법성쟁취대회와 시위에 참가했다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박종철은 그해 7월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민중지향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학생운동에 헌신하였다.

그는 1987년 1월 13일 자정 경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소속 수사관 6명에 의해 연행되었다.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수배 받고 있던 박종운을 잡기 위해서였다. 박종철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다가 14일 숨졌다.

경찰은 초기 발표에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말하며 발뺌을 하였으나, 시체부검 결과 전기고문과 물고문에 의한 살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검의의 증언으로 사건발생 5일 만인 19일 정부는 물고문 사실을 공식 시인하고, 수사경관을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사건 진상의 일부가 공개되자 정부는 내무부장관과 치안본부장의 전격 해임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다.

그러나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김승훈 신부가 미사에서 대공간부 3명이 이 사건을 축소·조작하였고, 고문가담 경관이 5명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이 폭로로 재야 진영은 6월 10일에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6월 10일, '박종철 고문 은폐조작 및 호헌선언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서부터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되었다.

1987년 1월 14일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당시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였던 신성호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정점이었던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 사건은 일어난 지 3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민주화의 시발점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2001년 2월 26일, 박종철 열사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명예졸업장을 받았으며, 그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동편에 추모비가 건립되었다.

서울대학교

우리 팀 '동지들'은 박종철 열사의 모교였던 서울대학교를 방문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고등교육기관이었던 서울대는 대학동에 있는 동승동에 지어졌으나 군부정권의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 등의 이유로 관악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서울대학교는 4.19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이며 유신 체제와 5공화국을 거치는 동안 학생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곳이기도 하다. 관악캠퍼스로 이전 한 후, 서울대학교에서는 군부정권의 독재적 간섭 강화와 이에 맞선 학생과 교수들의 민주화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내 시

위가 격렬했던 이때를 시위와 경찰 군부의 대결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박종철 열사는 1987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 공안 당국 취조실에 끌려가, 당시 학생운동을 하던 선배 박종운의 소재를 취조받던 도중 심한 고문으로 사망했다. 이를 추모하기 위해 1989년 박종철과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동아리 선배들이 주축이 되어 '박종철 출판사'를 설립했고, 1997년에는 그의 추모비와 흉상이 이 곳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 건립되었다. 우리는 이 추모 공간을 돌아보며 그의 삶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87년 1월 동아일보 보도 사진



박종철거리 전경

박종철 거리

녹두거리에는 박종철 거리라는 곳이 있다. 2018년에 조성된 이 길은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박종철 열사가 서울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하숙을 하던 골목이기도 하다.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고 그의 숭고한 의지를 기억하기 위해 2018년에 이 녹두거리를 '박종철 거리'로 지정하고 이곳에 '박종철 벤치'를 설치하였다. 이 벤치는 6·10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 박종철 열사의 민주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벤치에는 열사의 생전 모습을

을 본떠 만든 조형물과 "저들이 비록 나의 신체는 구속을 시켰지만 나의 사상과 신념은 결코 구속시키지 못합니다."라는 옥중 편지의 일부가 새겨져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박종철 열사의 민주정신을 기리고 추모하였다.

향린교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가 치솟던 중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발기인 대회가 이곳 향린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재야인사 150여 명은 경찰을 따돌리고 향린교회에서 대회를 무사히 마치는 등 당시 향린교회는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날을 기념하는 동판이 교회 입구에 붙어있다.

명동성당

대한민국 천주교 최초의 본당이자 한국 가톨릭의 본산인 명동성당은 민주화 운동사의 중심에 서있었다. 이곳은 5,18 민주화 운동 7주기 추모 미사에서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치사와 관련된 경찰의 은폐 조작을 폭로한 장소이다. 그 해 6월 10일, 치열한 시위 중 경찰에 밀리던 시위대는 명동성당으로 들어왔고 6월 15일까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전국민의 민주화 열망이 뜨겁게 타올라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농민운동과 인권운동에 항상 동행하며 '민주화의 성지'로 자리 잡게 된 명동성당에서 탄압에도 불구하고 소명 의식을 갖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았다.



명동성당 전경



성공회성당 설명문

1) '만화사랑' 동아리는 대학생들을 운동권 (과거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사회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일컫는 말)으로 쉽게 포섭하기 위해 만들었던 동아리였으며, 그렇다고 운동권 학생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만화가 좋아 들어온 학생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한열 열사는 동아리에 들어온 후 만화 역시 열심히 배우며 이 둘 간의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비추어진다. 이런 '만화사랑' 동아리는 1989년 설인중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난 뒤 운동권과 전혀 무관한 동아리가 되었다.



광주 집에서의 5남매

성공회 서울 성당

성공회 대성당은 1987년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10민주항쟁의 진원지였다. 성당의 타종과 함께 차량들의 경적이 울리고 시민들이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함께 외친 국민운동본부의 국민대회가 바로 이곳에서 열렸다. 가두시위 형식으로 열린 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었다. 이곳에는 이 시작의 역사를 기록한 기념석이 세워져 있다. 이곳에서 시위가 열렸던 그 당시의 모습을 떠올려보았다.

이한열 열사

생애

이한열 열사는 1966년 8월 29일,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에서 5남매 중 넷째로 출생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을 화순에서 보내다가, 광주로 이사하고 광주 동산초등학교, 광주 동성중학교, 광주 진흥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재수 끝에 1986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였다.

그가 중학교 재학 중이었던 1980년, 그는 광주에서 발생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어머니께서 시체를 마주하고 충격을 받으셔서 하셨던 '집에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씀을 듣고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 채로 집에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자세하게 알게 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였다.

그는 대학교에 입학한 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전말을 알게 되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또한, 군부독재 정권에 대항하고자 하여 '민족주의연구회'와 '만화사랑'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당시 학생들은 반독재 슬로건을 걸고 동아리를 만들 수 없었고, 따라서 만화나 음악 등등의 명목하에 건설된 동아리들이 많았는데, '만화사랑'¹) 동아리는 그중 하나였다.

이런 활동을 이어 나가던 중 그는 1987년 6월 9일, 하루 뒤에 열릴 예정이었던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국민대회'의 출정 즉 6.10 대회 출정을 위한 범연세인 총궐기 대회가 끝나고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시위에 참여한 도중, 경찰이 진압을 위해 발포한 SY-44 최루탄에 뒷머리를 맞고 쓰러지게 된다.

그리고 쓰러진 이한열 열사가 이종창 학우에게 부축되어지는 이 찰나를 로이터 사진기자였던 정태원 씨가 촬영한 사진은 중앙일보, 뉴욕 타임지 1면에 실리며 국내외적으로 공분을 샀다. 이는 이전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함께 전국민적인 분노를 이끌어내었고, 이는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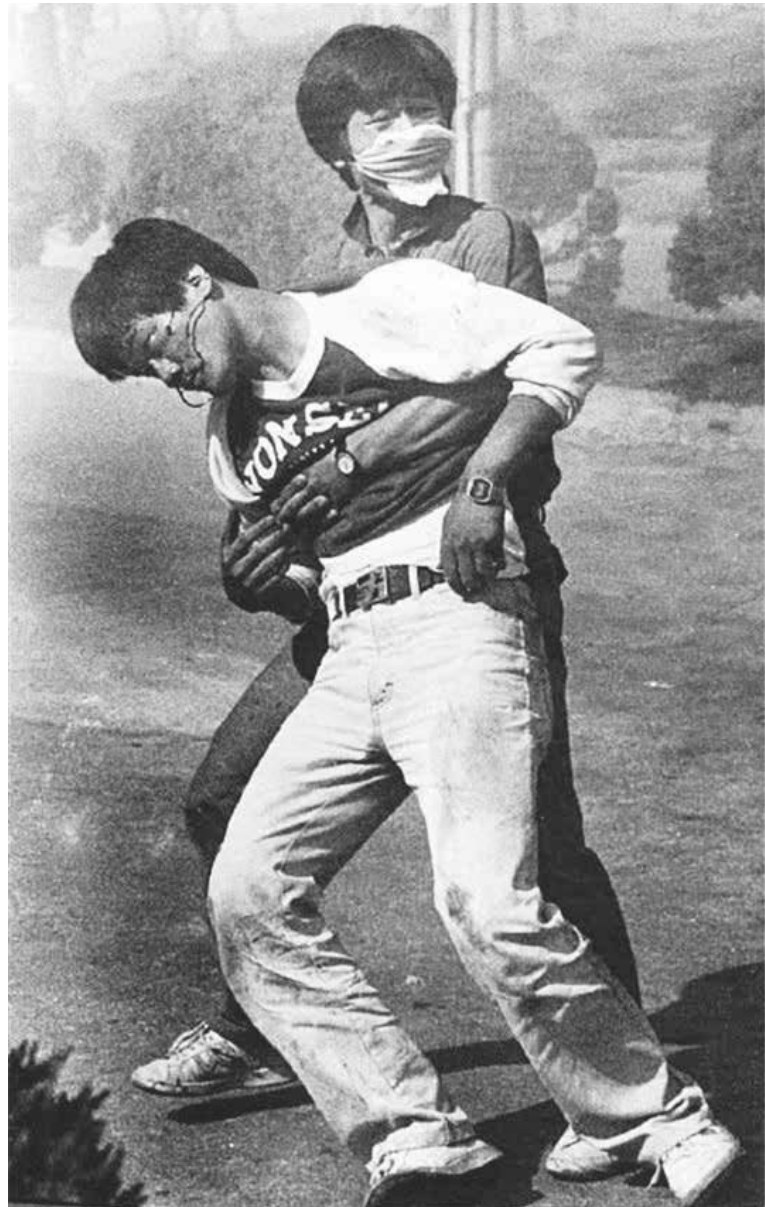


서울시청앞을 지나는 장례식 행렬

2) 국가 또는 사회에 뚜렷한 공적을 남기고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에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베푸는 장례의식.

20일 동안 학생과 시민 등 100만여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화를 외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얻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한열 열사는 이런 직선제 개헌을 목도하지 못하고, 7월 5일 새벽 2시 경에 사망하게 되는데 이후 7월 9일에 열린 장례식은 국민장(國民葬)²⁾으로 치루어지게 되었으며, 연세대학교 본관에서 신촌로터리를 거치고, 서울 시청 앞을 지나 당시 광주직할시 5.18 묘역으로 가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이후 1992년 2월, 이한열 열사는 연세대학교 명예학사 학위를 수여받게 되었고, 2005년 6월 9일, 이한열 열사 기념관이 신촌에 세워졌다. 또한, 이한열 열사 사망 29주년이 되는 2016년 6월 9일에는 추모동판이 연세대학교 정문에 설치되었다.



정태원 기자의 사진 ▶



이한열 열사 기념비

연세대학교

우리 팀 '동지들'은 이한열 열사의 모교였던 연세대학교를 방문했다. 연세대학교에는 이한열 열사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한열 기념비와 보도블럭에 있던 동판을 볼 수 있었다.

이한열 기념비는 현재 한열 동산에 세워져있는데, 전에 있었던 '이한열 열사 옛추모비'는 현재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 옛추모비는 1988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성금을 모아 연세대학교 백주년 동산에 세운 것으로, 추모비의 앞에는 조각가 김봉조의 '숫구치는 유월' 작품이 조각되어있었다. 하지만 20여년의 세월이 지나자 곳곳에 균열이 생겨 철거되었다. 2015년 새로 세워진 이한열 기념비는 현재 연세대학교 한열 동산에 올라가있으며, '198769757922'라는 숫자가 새겨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열사가 쓰러진 날짜인 1987년 6월 9일, 사망 날짜인 7월 5일, 국민장의 날짜인 7월 9일, 당시 그의 나이 22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나와 정문 옆의 추모동판을 보았는데, 이 추모동판은 2016년에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 이 동판에는 국화 그림과 같이 "1987년 6월 9일 오후 5시 당시 연세대 2학년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이 곳, 유월 민주항쟁의 불꽃이 피어올랐다"는 글귀가 새겨져있었다. 동판은 글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열사가 쓰러진 그 장소에 설치되어있었다.

서울 시청 앞

최루탄을 맞은 이한열 열사는 1987년 6월 9일부터 27일동안 사경을 헤메다가, 1987년 7월 5일 새벽 2시 5분, 2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국민장이 치루어졌는데, 우리 팀 '동지들은 그 당시 국민장 진행 순서 중 세 번째로 순회하였던 '서울 시청 앞에서 당시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던 애도하는 국민들의 규모를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고자 했다.

지금과의 도로나 건물배치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나 넓은 대로로 다 메웠던 사진을 보고 다시금 숙연해질 수 밖에 없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한열 열사의 죽음에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도 화선이 된 울분이 어느정도였는지 현장에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머릿속에서라도 그려봄으로서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했던 것 같다,



유영봉남도 매리 이한열 열사

망월공동묘지

망월공동묘지는 공원묘지로 관리되던 곳으로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사망한 사람들이 유족과 신군부에 의해 묻혀있었다. 지금은 국립 5·18 민주 묘지가 완공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의 묘지가 대부분 그곳으로 이장이 되어 가묘가 되었지만, 그들을 기리기 위해 여전히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이한열 열사는 제3묘역에 묻혀있었으며, 우리는 그곳에서 이한열 열사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묘지

▲망월공동묘지에서의 이한열 열사의 묘지

역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6월 9일 시위의 궁극적 이유인 5.18운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안에서 여러 열사들과 함께 이한열 열사의 추모를 기릴 수 있었다.

이한열 기념관

2004년에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과 시민들의 성금이 합쳐져서 추진되었던 이 기념관은 2005년 개관하였다. 이 기념관에서 우리는 이한열 열사의 유품을 비롯하여 6월 민주항쟁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있었다.

그 곳에서 전시된 이한열 열사와 이한열 열사 어머니가 나누었던 편지, 그리고 이한열 열사의 유고 글들을 보다가 수류탄에 맞으셨을 그 당시 이한열 열사가 쓰고 있었다던 안경알이 깨진 안경테를 보는데 뒹어져있고 깔끔하게 정돈되어있었지만, 필자의 마음속에서 그 당시의 혼란스럽던 상황이 그려지는 것 같아 그 물건만 한참을 바라보았던 것 같다.



이한열 기념관 전시회



망월공동묘지에서의 이한열 열사의 묘지

탐방하며 느낀 점

강혜주

이렇게 우리는 열사들의 삶을 알아보고 그들의 삶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단지 며칠간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 민주화 운동은 목숨을 바칠 만큼의 평생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열사들의 삶을 탐방하는 동안 감사하게도 지식 외의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정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탐방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일상 중에 열사들의 희생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탐방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았고 일상 중에서도 그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자유는 많은 열사들의 땀과 피로 이루어졌기에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유, 민주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그들이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두 번째로, 열사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힘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조사한 세 명의 열사들은 모두 학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과 또래의 나이로서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다. 어린 나이에 이 세 명의 열사들은 자유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과연 그

시대로 간다면 그들처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 나는 열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열사들에 대한 묵념과 깊은 생각을 한 끝에,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우리는 학생 민주화 열사들의 뜨거운 열을 잊지 않으며, 사소한 것이라도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갈 것이다. 민주화 운동의 열사들은 언제까지나 우리 '동지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박세은

국가란 무엇일까. 탐방 내내 들었던 생각이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의 숨통을 조였다. 소리 소문 없이 고통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박종철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국민들의 고문 장소가 되었던 남영동 대공분실. 그들은 국민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국가에서 살았던 것이다.

애국심이라는 명분아래, 단지 폭력을 승진의 수단으로 여기며 국가 폭력에 앞장섰던 그들.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 발뺌하고 자신의 잘못을 축소시키고 은폐하려는 그들은 아

탐방하며 느낀 점

직도 뉘우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되풀이 된다.

공포의 대공분실에서 꺼져가야만 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불씨를 생각해서, 앞으로의 우리를 위해서 말이다.

뜨거웠던 여름 날, 서울 민주화의 열기와 흔적을 보기 위해 돌아다녔다. 박종철 거리에 있는 그의 동상에는 그의 신념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 적힌 벤치가 있었다. “저들이 비록 나의 신체는 구속을 시켰지만 나의 사상과 신념은 결코 구속시키지 못합니다.” 그의 편지 내용이었다. 동상에서 보이는 그의 올곧은 눈이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탐방을 하면서 민주화의 주요 장소였던 곳들을 둘러보니,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장소가 서울에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이유 없는 고문과 폭행이 일어났을 때, 나는 나의 소신을 뚜렷하게 말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할까. 몇 달 동안 방 안에 갇혀 고문을 받는다면 나도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하지 못할 것 같았다.

국가 폭력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그때의 기억으로 고통받으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살아왔기에 그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는 것이고, 우리 또한 이 사회에 분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주체적인 민주화 열기를 계속해서 불태워가기 위해서는 그에 위반되는 사람들과 제대로 처벌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폭력의 피해자들이 당당히 국가에 맞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걸어가며 대항해주는 것밖에 없다. 그들과 같은 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예의주시해야 한다. 폭력이 사상을 지배할 수는 없다. 박종철이 구속이 되어도 저버리지 않은 사상과 신념을 다시금 곱씹어 보았다.

민주주의 역사를 돌아보고 민주주의 현장을 탐방하며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 항상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 때면 막막함이 가득했지만 이번 민주주의 현장탐방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사회를 알고 역사를 아는 것은 현재의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 세대에 남겨진 과제가 분명히 있음을 깨

달으며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끝까지 이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절대 잊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전지혜

우리가 잘 알고, 자주 쓰는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비록 고전적인 말이지만, 지금 이 세대에 들어와서 없으면 안되는 말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와닿았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따라서 당시를 명확히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그 민주화운동에 대한 처절함과 절박함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조금이라도 그들의 그 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일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과정을 ‘아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역사가 한국사라는 이름으로 이수필수과목과 수능필수과목으로서 지정되어도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시험기간에만 기억하고 말아버리는 단기기억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미래세대에게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시켜주면서 정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강적인 부분을 상식으로 내리얹게 만드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화운동에 나가 싸워주신 운동가 분들과, 희생되신 열사 분들이 두렵지 않던 것은 아닐 것이다. 현재 우리가 ‘목숨을 걸만큼 원하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정말 죽을 다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분명히 망설일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운동가분들과 열사분들께서도 분명히 망설이셨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한열 열사는 무력이 동원되는 시위가 무섭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한다.

열사께서는 솔직하셨고, 용감하셨고, 실천하셨다. 현재 우리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21세기 민주주의가 내리깔린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솔직함과, 그 용감함과, 그 실천성을 본받아 대한민국을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일들을 거침없이 해나아가는 것이다.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며 그분들이 그린 대한민국과 우리일 것이다

더울림

김유정 홍우영 김예슬



민주화 운동을 음악에 담기 위한 여행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입니다. 저희 3명 모두 『열전, 18인의 인천 민주화운동가』라는 책을 읽고 감명이 깊어 이것을 주제로 양진채 작가님과 만나 조언을 받으며 공연을 기획하고 있던 도중 그 시절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글자로만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현장 탐방을 통해 직접 경험해보려고 합니다.

■ 모듬 구성

구분	성명	더울림 앙상블팀
조장	김유정	기타리스트
조원	김예슬	바이올리니스트
조원	홍우영	플루티스트

■ 모듬 정보

모듬명	더울림
모듬소개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이 모여 만든 앙상블로 더 울림 앙상블 팀원 중 3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열전, 18인의 인천 민주화운동가’라는 책을 읽고 이것을 주제로 양 진채 작가님과 만나 조언을 받으며 공연을 기획하고 있던 도중 그 시절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글자로만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현장 탐방을 통해 직접 경험하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탐방 계획

탐방 주제	민주화 운동을 음악에 담기 위한 여행
탐방날짜	2021년 8월 10일~ 8월 12일 (3일간)
탐방계획 요약	1. 5.3 운동의 역사 현장 탐방을 통한 맥락 파악 2. 1987년 민주화운동의 역사 현장 탐방을 통한 맥락 파악 3. 대한민국 시민운동의 원동력 확인
탐방 세부 일정	8.10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답동성당, 동인천역 6.10 기념비 인천 민주화에서 빠질 수 없는 5.3 운동에 대해 더 잘 알아보기 위해 인천 민주화 운동센터를 선택했으며 ‘열전, 18인’ 책에 소개 된 김병상&호인수 신부님과 관련이 높은 답동성당을 방문하여 한국민주화운동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선정. 8.11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태일거리, 명동성당 1976년 3.1 명동 사건이 일어났던 명동성당을 방문하고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에 대해 알아보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한국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위 장소들을 선정. 8.12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일반 시민들이 직접 국가를 바꾼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촛불 운동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시초인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선정.

■ 탐방 결과

탐방 주제	민주화 운동을 음악에 담기 위한 여행
탐방 날짜	7/31, 8/31, 9/10 총 3일
탐방 계획 요약	1. 5.3 운동의 역사 현장 탐방을 통한 맥락 파악 2. 1987년 민주화운동의 역사 현장 탐방을 통한 맥락 파악 3. 대한민국 시민운동의 원동력 확인
탐방 세부 일정	7.31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 만석보 혁파비 → 전봉준선생고택 → 전봉준장군단소 8.31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 답동성당 9.10 - 명동성당 → 전태일기념관 → 전태일다리
변동 사유	코로나로 인한 6시 이후 2인 제한

정음

2021년 7월 31일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사회 질서와 정치를 바로 잡고, 조선을 침략하려는 외세를 몰아내고자 백성이 직접 일으킨 역사적인 사건이다.

결국에는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전봉준과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이 송두호의 집에 모여 탐관오리 조병갑을 쫓아낼 계획을 세우며 둥근 사발을 본 딴 동그라미 위에 각자 이름을 새긴 사발통문 유물을 직접 보니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고자하는 의지와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그 굳은 마음이 느껴졌다.





만석보를 설치하고 과중한 물세를 거두며 농민들을 수탈하던 고부 군수 조 병갑을 응징하는 고부농민봉기를 시작으로 무장기포→백산대회→황토현 전투→황룡 전투→전주성 점령→전주화약 체결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당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었지만 집강소를 설치하면서 나쁜 정치를 바로잡고 마을의 안정을 위해 전봉준 장군은 일하시기를 원했다. 동학농민 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들의 노력과 결실은 많은 정당하지 않은 조선의 정치와 관습을 바로 잡았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외치던 선열들의 뜨거운 신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인천

2021년 8월 31일

인천민주화운동센터와 답동성당을 방문하면서 인천이라는 지역에서 많은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불합리함에 맞서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노력한 많은 이들의 흔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인천에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따로 있는지 존재조차 알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인천지역 소중한 민주화운동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 정리하고 계승하는 민주시민교육 및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인천민주화운동센터를 알았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옛날의 인천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답동성당에는 1987년 6월에 있었던 민주 항쟁을 잊지 말자라는 석판이 세워져있고 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답동성당에는 역사관이 마련되어있는데 더 울림 양상블에서 기획하고 있는 '열전-18인의 인천 민주화운동가'에 나오는 인물 중 김병상신부님, 조화순목사님, 이충각선생님등 민주화운동을 하신 많은 분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들을 다시 돌이켜 보게 되니 더욱 마음에 새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과거의 아픔과 부당함, 존중받지 못했던 인권 등 어두운 역사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현재 살고 있는 인천의 이야기라서 더 와닿았던 시간이었다.



서울

2021년 9월 10일

전태일 열사의 생애를 살펴보면 내가 어려움에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인정과 마음이 있을까 스스로 돌이켜 보는 시간이었다. 전태일 열사는 가난한 집안에서 고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린나이에 숨을 거두었지만 그는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로 부당한 노동 현실을 극복해나갔다. 햇볕이 들지 않고, 먼지가 심하게 날리며, 다락방을 덧대어 허리조차 펴 수 없는 좁은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동, 밤샘 야간 노동에 시달렸지만 그만한 댓가는 받을 수 없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태일 열사는 노동 실태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결심한다. 전태일의 분신행위는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후 노조들은 노동조건 향상 및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하였고 전두환 정권 기간 중 구로 동맹파업 등으로 1987년의 노동자 대투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영화 '1987'의 배경이 되었던 명동성당은 물고문과 전기고문으로 인하여 87년 1월14일에 숨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경찰이 고문을 했음에도 책임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뺌을 하였지만 시체 부검 결과 고문 사실 및 검찰, 경찰의 사건 은폐조작시도가 드러남으로 국민들이 더 크게 분



노하였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민주화 요구와 4.13 호헌조치 철폐투쟁이 일어났다. 이한열열사의 최루탄 피격 사건으로 6.10 민주항쟁을 더욱 국민들의 결의를 다지게 만들었고 이후 '6월 항쟁'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전국 22개 지역에서 24만여 명이 참여하였던 동시다발적인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1987년 5월 18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 정부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로 시작된 6월 민주화 운동의 시작점 명동성당에 방문하였다.

명동성당은 5월 18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조작 사실 폭로로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하는 노동운동가들의 민주화의 성지였고, 억압받는 자들의 피난처였고, 가난한 자들의 보호처였고, 용기있는 자들의 기댈 언덕이었다.

그 당시에 군부독재의 세력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들의 흔적을 없애고 잔인했는지 들을 수 있었다. 부당함에 맞서 온몸을 바쳐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외침을 우리는 잊으면 안된다는 생각과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의 노력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청춘극장

서유현 조보경 김시영



청년, 청년 전태일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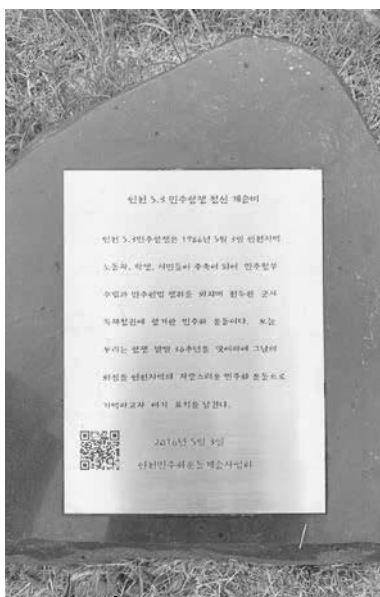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그동안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난 민중가요 페스티벌에 연주 팀으로 참여하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탐방을 통해 민주화 운동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생각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동대문 평화시장과 전태일 기념관, 모란공원을 탐방하면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한 22살의 청년의 삶과 죽음을 돌아보고, 1970년의 노동현실과 2021년 현재의 노동현실을 비교해보려 합니다.

코로나19는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부푼 꿈을 안고 떠난 여행 첫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탐방 멤버 중 한명이 밀접접촉자라는 통보를 받고 바로 인천으로 복귀하여 자가격리 15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엔 현장탐방을 두 번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이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도 누군가 자유를 쟁취하고자 피흘려 투쟁하였기에 얻을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현장을 탐방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그 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천 5.3민주항쟁 정신 계승비

주안 시민공원

'옛시민회관사거리'에 위치한다. 2000년까지 인천시민회관이 있던 자리로, 이 회관은 1994년 구월동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기 전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존재했던 대형 공연장이자 컨벤션 장소였다. 2000년에 회관 건물을 헐고 근린공원인 '옛시민회관심터공원' (또는 '시민공원')을 조성해놓은 곳이기에 '시민공원'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회관이 철거된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2020년 현재도 이곳은 시민회관이나 시민회관사거리로 불리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아직도 그렇게 불리고 있어서 시민공원이라고 하면 잘 모를 수 있다. 심지어 이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20~30대 은총들도 이곳을 시민회관사거리로 불리고 있다.

시민회관 터에 가보면 인천 5.3 민주항쟁 정신 계승비가 놓여 있다.

1986년 5월 3일 인천남구 주안사거리 일대에서 80년 5월 광주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모인 인원은 약 5만여명.

노동, 학생, 재야 다양한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기에 제각각 외치는 목소리는 달랐으나, 모두에게 공통되는 구호가 있었으니 '독재타도', '직선제 쟁취'였다.

이 날 경찰은 최루탄과 곤봉을, 시위대는 투석과 화염병으로 대치하여 주안 일대에서 차량 여러대가 불에 타기도 했다.

그 유명한 6.10 민주항쟁에 묻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87년의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 5월 3일 현장에서만 129명이 소요죄로 구속되었고, 아예 민주화운동 단체를 송두리째 뿌리째 뽑으려 들었던 군부독재정권의 무리한 탄압은 부천서 성고문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이어져 87년 6월항쟁의 불길로 타오르게 되었다.

소감

일단 저희가 다 인천에 사는데 저희가 사는 곳 근처에 이런 역사적인 곳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아직 그 거리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장소가 관리 소홀로 지저분했던 것이 조금 아쉽지만, 우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며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태일

1948년 9월 28일 대구 남산동에서 아버지 전상수와 어머니 이소선 사이에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무척 다정다감한 성격에 불의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기질의 인물이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재단사였던 그의 집안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 부산으로 이사갔다가 서울로 이사온 후 아버지가 봉제 공장을 차려 어느 정도 먹고 살 수준의 생활을 영위한 적도 있지만 4.19 혁명 직후 거액의 사기를 당하는 통에 온 가족이 다시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졌다. 밥을 못 먹는 일은 약과에 불과했으며 이는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시절까지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다니던 초등학교마저 중퇴하고 17세 무렵 무일푼의 몸으로 상경해 청계천 평화시장 피복점에 이른바 '시다'라고 불리는 재단 보조로 취직하게 된다. 이후 재단사로 일하던 중 재단 보조 여공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박봉, 질병(폐렴 등)으로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그러한 노동 현실의 타파와 개선을 위한 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전태일은 모범 업체라고



전태일 동상 ▶



전태일 기념관

하여 요즘의 '사회적 기업'과 같은 개념의 기업체를 만들어 근로기준법 준수 및 직공들의 근로 여건 등을 개선시켜 평화시장에 있던 업체들에게 직공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시발점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자본금이 부족하여 좌절되었다. 사업 기획서까지 만들어 두고 작업장 배치와 근로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두었다.

그러던 중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그 내용을 독학하려 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전문이 국한문 혼용인지라 내용을 알 수 없어 "대학을 나왔더라면 또는 대학에 다니는 친구라도 있었으면 알 수 있었을텐데..."라며 한탄했다고 한다. 『전태일 평전』을 통해 알려진 그의 이러한 생각은 당시의 대학생들에게 현실 참여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해설서를 구입하여 밤낮을 안 가리며 읽었는데 말이 해설서지 법률 용어 투성이었기에 초등학교 중퇴 학력의 전태일에게는 악전고투였을 것이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던 '광식이 아저씨'라고 부르는 나이 든 대학생을 자주 찾아가 용어의 뜻을 묻기도 했으며 어떤 날은 해설서 한 페이지 읽는데 하루를 꼬박 새운 적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읽어낸 근로기준법상의 내용과 현실의 괴리를 절감한 그는 1969년 6월 평화시장 최초의 노동 운동 조직인 '바보회'를 창립하여 현재 근로 조건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막장 현실 속에서 봉제 공장주들에게 밉보인 전태일은 직장에서 해고된 후 평화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한동안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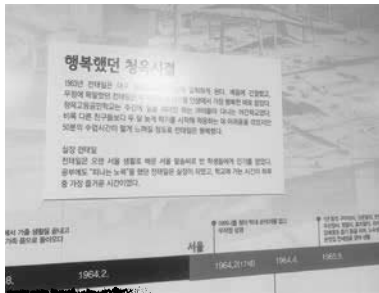
한국노동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고, 그의 정신을 기려 노동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기념관은 전태일 열사의 분신 장소인 평화시장 근처 청계천 수표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상 6층 · 총면적 1920㎡(580평)이다. 2019년 4월 30일 개관했다.



봉제공장 작업장 체험



전태일의 꿈



전태일의 어린시절 전시

총 6층으로 이뤄진 기념관 정면에는 전태일 열사가 1969년 근로감독관에 게 열악한 여공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쓴 자필 편지를 텍스트 패널로 디자인해 부착했다. 기념관 내부는 전태일의 생을 다룬 전시관을 비롯해 공연장과 노동자들의 공유 공간인 노동허브,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층별로 보면 1층엔 전태일 열사 전시실, 2층엔 공연장 올림터, 3층엔 전시장 이음터, 4층엔 노동허브, 5층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위치한다. 전시는 '전태일의 꿈, 그리고'를 주제로 한 상설전시가 열리며, 연 3~4회 노동 관련 또는 시대적 이슈를 다루는 기획 전시가 열린다. 첫 기획전시는 '모범업체: 태일피복'으로, 전태일 열사가 1969년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그가 만들고자 했던 모범 봉제작업장을 구현해 낸 전시다.

시다(견습공)들은 햇벌이 들지 않고, 실면지가 심하게 날리며, 다락방을 덧대어 허리조차 펼 수 없는 좁은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동, 밤샘 야간 작업에 시달렸다.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대부분의 노동자가 질병에 시달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태일은 바보회 이후엔 삼동회를 결성, 노동실태를 조사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공간에는 전태일의 <바보회 회장 명함>과 당시 실태조사 설문지 등이 전시 되어 있다.

전태일은 숨을 거두기 전, 어머니에게 자신이 못다 이룬 일을 이루어 달라 부탁했다. 이소선 어머니는 그의 뜻을 이어 곧 바로 청계피복노동조합을 창립했고, 학생, 종교계 및 사회도 노동문제에 대해 각성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소선 어머니와 노동자들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였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조의 합법화를 이루어 내는 과정을 담았다.

가난 속에서 힘들지만 배움에 기뻐했던 전태일의 어린시절을 수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펼쳐 놓은 공간이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대구와 부산, 서울을 오가며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고, 어린나이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우산장사, 구두닦이, 신문팔이 등을 하며 어린시절을 보냈다. 배우는 것을 좋아했던 전태일은 반년도 채 다니지 못한 청옥고등공민학교 시절을 가장 행복한 때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다.

소감

전태일 기념관을 방문하면서 정말 저런 환경에서 일을 했나 싶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을 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전태일 열사와 같은 분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생겼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꿈은 내가 잘 먹고 잘사는 것이라면 전태일의 꿈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최저임금이라도 받는 것이 꿈이었던 것 같아서 현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 놀라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나이였던 23살에 노동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는 이야기에 저희는 과연 그런 상황에서 전태일 열사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전태일 열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마석 모란 공원

대한민국의 공동묘지 중 하나로, 이름과는 다르게 공원이 아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에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설 공동묘지로, 보통 '마석 모란공원'이라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마석우리가 아닌 월산리에 있다. 화도읍 자체를 '마석'으로 지칭하기 때문에 마석 모란공원이라 통칭하는 것이다.

약 13,000기의 묘소가 있는데, 민주화 · 노동운동가들도 별도의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1966년부터 조성에 들어갔고 1969년에 안장을 시작하였다. 정문이 옛 46번 국도 앞에 있으며 정문 앞에는 모란미술관이라는 이름의 미술관이 있다. 모란공원이 있는 산으로 46번 국도의 터널이 지나는데 터널 이름이 모란터널이다. 모란터널이라는 이름은 모란공원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민주열사 추모비

소감

모란 공원이라는 곳을 이번 '민주주의 현장 탐방'을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의 느낌은 정말 편안하고 푸릇푸릇한 잔디가 깔려있는 조용한 이곳에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가 숨쉬고 있다는 것에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 말고도 다른 어른들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 같이 절을 하며 우리의 역사에 존경을 표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 그 모습을 본 우리들은 모두 나도 나이를 먹어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와 같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의 묘소를 다 방문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전태일, 노회찬, 백기완 님의 묘소를 방문해 잠시 묵례로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묻힌 분들 말고도 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겠지요. 후대를 사는 젊은이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당연한 일상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故 전태일 열사 묘소



故 노희찬 의원 묘소



故 백기완 선생님 묘소

강원 대학교



강원대학교 천지관의 모습



강원대학교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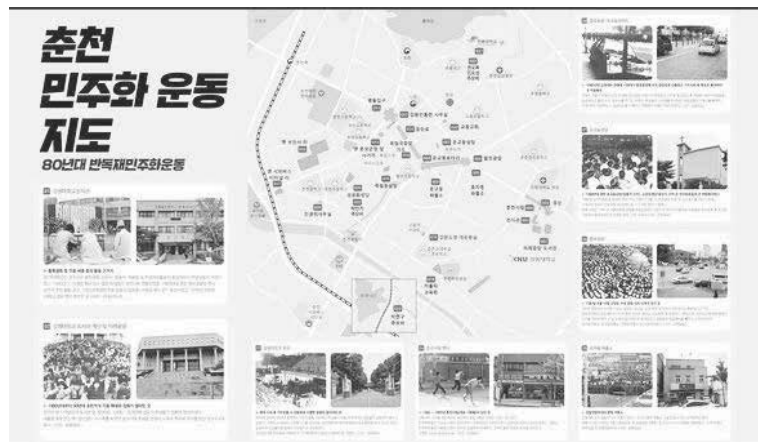
춘천 민주화운동의 근간은 곧 학생운동이다. 강원대, 한림대 등 강원도 대학1번지였던 춘천에서 학교를 다녔던 1970~80년대 대학생들은 12·12사태(1979년) 이후 등장한 신군부의 폭력적 탄압, 1980년 광주에서 벌어졌던 참상, 1987년 박종철 열사의 죽음 등을 목격하고 거리로 뛰어나와 엄혹한 시대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춘천 민주화운동 지도에도 이 같은 학생운동의 성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강원대 천지관은 총학생회와 신문사, 방송국 등 학생 자치활동의 중심지이자 학생운동의 거점이었다. 1985년 학원 민주화운동 시 김래용(자원공학과 80학번) 군과 1990년 이미희(과학교육과 89학번) 양이 분신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이유로 1980년대 학생운동 첩보를 수집하려는 정보경찰의 주된 활동지이기도 했다.

강원대 앞 거리는 1980~90년대 각종 학내외 집회가 열렸던 도서관 계단과 미래광장, 가두시위 시 최루탄을 쏘며 진압하던 경찰과 보도블록을 깨부쉘 집어던지며 저항하던 학생들이 대치하던 곳이었으며, 그 앞의 강원 운동권 학생들의 이념 전파자 노릇을 했던 '춘천서림'은 현재 떡볶이전문점으로 변해 있다.

1987년 봄부터 항쟁의 전운이 감돌다가 6월로 접어들면서 당시 춘천지역 학생운동권을 넘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일반시민들까지 직선제 개헌과 호헌철폐 구호를 외치는 상황이 전개됐다. 이에 경찰의 진압은 더욱 거세져 구타는 물론 최루탄을 시위대에 직접 겨냥해 발사, 파편에 자상을 입은 학생들도 많았다.

춘천 민주화운동 지도 ▶



이 같은 진압분위기에 민주화 열망은 더욱 거세져 1987년 6월19일 춘천 팔호광장에 1만명의 대규모 군중이 집결했고 경찰의 진압에 맞서 도청을 점거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소감

강원대학교는 저희 팀원 중 한명이 자신의 친구가 여기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에게 학교 안내를 도움 받았습니다. 그때 안내를 맡았던 친구에게 강원대학교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인 것을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는 제가 조사한 것 보다 더욱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학교인 강원대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80~90년대 학생운동을 보며, 사회보다는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지금의 대학생들이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절

예맥의 오랜 전통 서려 있는 곳
겨레의 얼과 슬기 이어받았다
새 시대 빛을 받은 희망의 등산
우리는 자라나는 보금자리다
(후렴)여기는 나라의 빛 겨레의 자랑
학문의 전당이다 강원대학교

2절

배달의 아들 딸 젊은 학도들
새 역사의 바퀴를 떠밀고 가자
가슴마다 품고 있는 크 높은 이상
조국과 인류 위해 봉사하리라

강원대학교 교가

2021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 탐방

민주야 여행가자!

탐 방 보 고 자 료 집

발 행 일 2021. 11. 10.

발 행 처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주 소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로78 (주안동 170-8) 미추홀구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402호

전 화 032)862-5353 팩 스 032)862-5352

디 자 인 도서출판 다인아트

※ 자료집에 있는 자료나 콘텐츠의 무단 도용, 복제, 배포를 금하며,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